

SPECIAL DSU

동서대학교의 이유 있는 자신감
미래형대학을 향한 10가지 변화

HOT ISSUE

동서대학교 '세계인 평판도 평가'
부산지역 사립대학 1위

DSU NEWS



MY BRIGHT FUTURE

Special DSU

미래형대학 동서대로의 변화

06

Keyword

미래형대학을 향한 10가지 변화

10

Interview

동서대 제9대 장제국 총장



Cover story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책임지는
동서대학교에서 피어나는
인재들의 꿈,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동서대학교, 그 속에
'My Bright Future'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DSU NEWS

2019 Vol. 374

동서대학교 매거진 <DSU NEWS> 통권 374호

발행인 장제국 발행일 2019년 2월 18일

발행처 동서대학교 종합홍보실

디자인·제작 굿디자인연구소

Deep

깊이 있게 바라본 DSU

12

Hot Issue

동서대학교 '세계인 평판도 평가'
부산지역 사립대학 1위

16

DSU Pride

성공적 미래를 약속하는 성과들

20

DSU Global

미국·중국·일본 SAP 체험기

임보라의 글로벌 도전기

International College, 글로벌 교육의
새 바람이 되다

Passion

열정이 있는 청춘 DSU

34

Awards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4년 연속 워너 선정
광고PR전공 남택광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를 다녀오다!
다이나믹 부산 UCC공모전에서
동서대 유학생팀 최우수상 수상

40

Career

일본 글로벌 기업 라쿠텐 취업 성공기
파이낸셜 뉴스 예비입사자 2인

44

I'm DSU

외국인 교수
Interview with Professor Elena Tsomko
외국인 유학생 수기
EdvinasLiutika / Hanh Vuong

Wide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본 DSU

48

Space

생각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창의교육 공간,
'팹랩(Fab Lab)'

52

Share

아우인형전을 통한
패션디자인학과의 나눔 실천

56

People

(주)아이피미라클 대표 정장한 동문

58

DSU-toon

로망이 꽃피는 새내기 캠퍼스

60

Record

Show time for Graduation Project

62

DSU News

2018 학위수여식 외



꿈꾸는 동서, 미래는 너의

미래형대학 동서대로의 변화

1992년 개교한 동서대학교.

비록 짧은 역사지만, 그 속에서 동서대는 많은 것을 이루어왔습니다.

특성화, 정보화, 세계화의 3대 전략을 기반으로, 동서대는 오로지

인재들의 미래,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남보다 앞서서’, 혹은 ‘무언가 보다 혁신적’인 행보를 위해

동서대학교는 ‘혁신적인 미래형대학’을 향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는 ‘미래형대학을 향한 동서대의 10가지 변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감동을 주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것



My Bright Future

동서대학교의 이유 있는 자신감

미래형대학을 향한 10가지 변화

동서대학교는 “미래의 대학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늘 물음을 던진다.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동서대는 ‘미래형대학을 향한 10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 최초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인재들의 창의력과 창업 능력을 길러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첨단공학부터 문화콘텐츠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들이 스스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탄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동서대학교가 만들어가는 미래형대학을 향한 교육시스템은 인재를 꽃피우는 새로운 씨앗이 되고 있다.

01 미국과 중국, 일본 해외캠퍼스에서 만끽하는 캠퍼스 라이프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동서대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 플러튼시와 중국 호북성 우한시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국내 최초의 대학이다. SAP프로그램을 통해 두 대학의 캠퍼스에서 매년 200명의 학생이 전공과 어학공부를 함께하고 있다.

2017년 2학기부터는 일본 SAP가 신설되어 일본경제대학 후쿠오카 캠퍼스에 파견된 60명 안팎의 학생이 대학의 경제적 지원 속에서 학업과 일본 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02 아시아 중심을 꿈꾸는 인재 아시아 포커스 교육

21세기 글로벌 경제는 아시아 시대다. 동서대학교에는 아시아 시대를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다양한 교육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한·일·중 정상들이 합의한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2017학년부터 동아시아학과를 신설해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3 동서대 안과 밖, 국제화캠퍼스

동서대학교의 캠퍼스는 이미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글로벌캠퍼스가 되었다. 중국, 리투아니아,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유수의 대학들과 2+2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International College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영어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04

내 안에 숨겨진 창의적 마인드를 깨우는 창의능력개발 교육

이제 창의적 인재만이 급변하는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 동서대학교는 이를 위해 1학년 전원에게 전공에 관계없이 체계적인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며 창의적 마인드를 일깨워주고 있다. 학생들이 생각하며 만들고, 시험하고 활용해 사업화까지 꿈꿔보는 자유로운 창의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끼와 꿈을 펼치고 싶은 청춘을 위한 달란트개발센터

동서대학교는 학생 개개인에게 숨어 있는 특별한 가치를 찾아주기 위한 달란트개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달란트개발센터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끼와 재능을 찾아내 꿈을 실현해 주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창의성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단 한 명의 학생도 좌절하거나 낙오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05

06

4차 산업 연계 융복합 학문 실현을 위한 최첨단 조립(Assembly)형 대학 구축

동서대학교는 탁월한 교육 콘텐츠로 구성된 교과목을 개발·운영하는 '조립형 대학'을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T-Lab에서 개발되는 '가상현실(VR) 기반 콘텐츠 제작(디지털콘텐츠학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디자인학부)'을 들 수 있다. 또한 아시아판 온라인 강의시스템인 GAA(Global Access Asia)를 통해 외국 자매대학의 우수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조립형 교육과정도 구축하고 있다.



07

시대에 맞는 획기적인 스타일의 미래형 수업

동서대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수업방식을 배제한 획기적인 스타일의 미래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O2O(On-line to Off-line)수업을 통해 지식적 내용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프로젝트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 시험문제는 펼쳐져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지적 배치와 조합을 통해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의 창조력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학업성과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냈다.

첨단 융합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ICT특성화 학부**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센서, 3D프린팅, 가상/증강현실(VR/AR),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능성 게임, 특수영상 제작, 5D시네마 등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첨단 융합기술을 연구하는 ICT 트로이카 특성화 학부는 해외현장실습, 인턴십 등의 글로벌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인재 양성의 산실로 도약하고 있다.

08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DSU의 밝은 미래를 만들다**

예비 CEO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센텀캠퍼스

학생들의 본격적인 창업을 위한 전진기지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는 정부의 창업선도대학 선정을 계기로 학생들의 창의적 발상이 미래를 선도할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특히 센텀캠퍼스는 센텀지역의 첨단 ICT융합, 영상콘텐츠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학생창업의 컨트롤타워로 주목 받고 있다.

취업밀착형 문화·예술 교육**대한민국 문화콘텐츠 교육의 중심**

동서대학교는 문화와 예술이 융성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문화콘텐츠 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영화과, 연기과, 뮤지컬과)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방송영상전공, 광고PR전공)는 문화콘텐츠 생산과 발전을 선도하여 문화예술의 세계화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동서대학교는 아시아 영상문화 도시 부산을 선도하는 대학,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특성화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위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09



동서대 제9대 장제국 총장

미래 지향적 교육자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장제국 총장은 늘 학생들에게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라”고
말한다. 그것만이 빠르게 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어디서든 빛날,
당당한 ‘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남이 아닌 나의 삶을 사십시오.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대학교육 모델 제시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2018년 12월 26일, 이사회를 열고 동서대 제9대 총장에 장제국 총장을 재선임했다. 그의 임기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말까지 4년간이다. 장제국 총장은 2011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8년간 7대~8대 총장을 연임했고, 이번에 또 한 번 재선임되었다. 현재 대학은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늘 발전하고, 고민하는 동서대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필요했다. 이에 동서대는 대학운영 노하우와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오랜 경험을 쌓고 역량을 검증 받은 장제국 총장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장제국 총장은 임기 동안 ‘대학특성화 CK사업’, ‘LINC 사업’, ‘ACE+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선정 등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은 물론, 글로벌 교육부터 첨단공학, 문화콘텐츠 및 인문학 교육까지 교육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동서대를 지역 명문 대열에 올려놓았다.

장제국 총장은 새롭게 취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세계 젊은이들은 꿈과 욕망이 없는 저욕망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꿈도 없어지고, 4차 산업시대에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육의 새 바람, 미래형대학

그의 집무실 벽에는 ‘My Bright Future’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는 동서대, 그리고 장제국 총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글귀다.

장제국 총장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방식 역시 ‘미래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로 ‘미래형대학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고 있다.

“저의 꿈은 한국 대학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형대학’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비전 중의 하나가 바로 조립형 대학, 즉 Assembly 대학입니다.”

그가 말하는 조립형 대학은 각 대학들이 고유의 교과과정을 운영하면서, 중복투자를 하지 않고 서로 강점을 가진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만약 인도네시아 관광에 대해 배우고 싶으면 해당 국가의 자매대학과 과목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아시아관 MOOC로서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시범운영 중인 GAA(Global Access Asia)나 K-MOOC 등을 활용하는 것도 어셈블리형 대학 모델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시대가 변하고 있다.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 지금은, 또 미래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여기서 장제국 총장은 “과연 나 자신은 과거와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남이 아닌 나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은 언제부턴가 남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괜히 부럽고 나는 초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오히려 나의 장점이고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제국 총장이 말하는 미래형대학은 학생 저마다의 ‘가치’를 찾아주기 위해서 출발한다. 진정한 ‘미래형대학’은 학생의 단순한 성공이 아닌, 학생 모두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함을 느낄 때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4icu.org



UniRank™ University Rankings ▾ Universities by Country ▾ More ▾ About ▾

[uniRank](#) / [Asia](#) / [Korea](#) / [Busan](#) / [2018 Top Universities](#)

Top Universities in Busan 2018 Busan University Ranking

Introduction



What are the most popular Universities in Busan? uniRank tries to answer this question by publishing the **2018 Busan University Ranking** of 14 recognized Busan higher-education institutions meeting the following uniRank selection criteria:

- being chartered, licensed and/or accredited by the appropriate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related organization**
- offering at least four-year undergraduate degrees (bachelor degrees) or postgraduate degrees (master or doctoral degrees)
- delivering courses predominantly in a traditional, face-to-face, non-distance education format

Our aim is to provide a non-academic *League Table* of the top Busan Universities based on valid, unbiased and non-influenceable web metrics provided by independent web intelligence sources rather than data submitted by the Universities themselves.

2018 Busan University Ranking

Rank ▾	University ▾	
1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2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3	Dongseo University	Busan
4	Dong A University	Busan
5	Dong Eui University	Busan
6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san
7	Kyungpung University	Busan
8	Silla University	Busan
9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Busan
10	Sangmyung University	Busan
11	Kook University	Busan
12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Yeonje
13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14	Busan Women's College	Busan

Legend: Un Unranked Add University

3 Dongseo University

Related resources

Rankings and reviews of [150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orea](#)
 List of all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Asia by country](#)
 Search for programs and courses with the [uniRank World Universities Search Engine](#)

동서대학교 '세계인 평판도 평가' 부산지역 사립대학 1위

호주의 유명 빅데이터 기반
세계대학 정보 서비스인 uniRank 발표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알 수 있는 '2018 Top Universities in Korea' 순위 ... 동서대 전체 42위, 부산 사립대학 1위

국내만 해도 수많은 대학이 있고, 그 속에서 경쟁하여 높은 순위로 이름을 올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순위로 올랐다는 건, 그만큼 그 대학이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이 '결실'을 이뤄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서대는 지속적으로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해 온 결과, 호주의 유명 빅 데이터(Big Data) 기반 세계대학 정보 서비스인 uniRank의 '세계인 평판도 평가'에서 부산지역 사립대학 중 1위에 선정되며 그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었다.

호주의 유명 세계대학 정보 서비스인 uniRank는 2018년 9월, '2018 South Korean University Ranking'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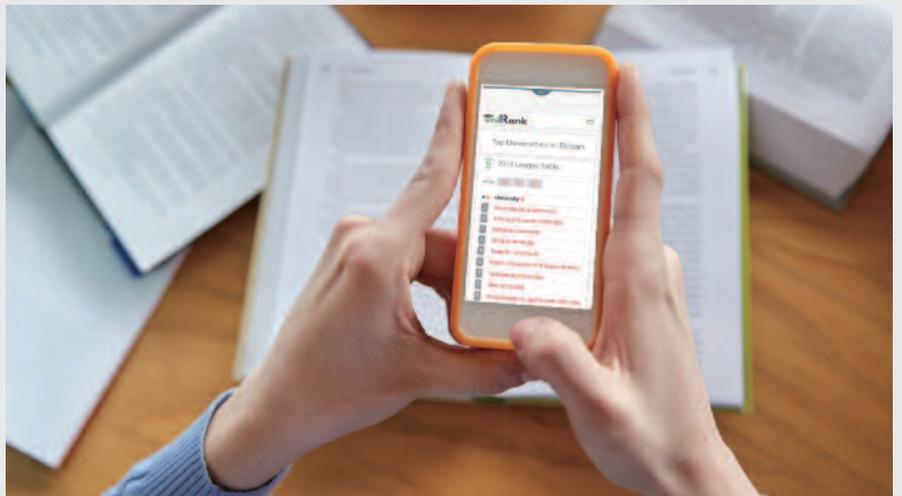
발표 결과 전체 순위에서는 서울대가 1위, 연세대가 2위, 고려대가 3위를 차지했다.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대가 전체 순위 5위를 기록하며 부산지역 대학 중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대에 이어 2위는 부경대, 3위는 동서대가 랭크되었다.

한국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대학이 21개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지역이 그 다음 5개 대학을 차지했다. 서울지역 대학들이

순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산대와 부경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가 부산지역의 자존심을 지킨 것이다.

특히 동서대는 전체 42위로 부산지역 사립대 중 1위이고, 부산대, 부경대와 함께 부산지역 톱 3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전체 순위에서 살펴보면 44위 부산 동아대, 52위 진주 국립경상대, 59위 서울의 상명대보다 높은 순위다. 다시 말해 지역의 국립대와 서울의 유명 사립대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uniRank는 그들의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의 190개 고등 교육기관을



uniRank / Asia / Korea / 2018 Top Universities

Top Universities in Korea 2018 South Korea University Ranking

Introduction

What are the most popular Universities in Korea? uniRank tries to answer this question by publishing the 2018 South Korean University Ranking of 190 recognized South Korean higher-education institutions meeting the following uniRank selection criteria:

- being chartered, licensed and/or accredited by the appropriate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related organization
- offering at least four-year undergraduate degrees (bachelor degrees) or postgraduate degrees (master or doctoral degrees)
- delivering courses predominantly in a traditional, face-to-face, non-distance education format

Our aim is to provide a non-academic League Table of the top South Korean Universities based on valid, unbiased and non-influenceable web metrics provided by independent web intelligence sources rather than data submitted by the Universities themselves.

2018 South Korean University Ranking

Rank	University	Town
1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	Yonsei University	Seoul
3	Korea University	Seoul
4	KAIST	Daejeon
5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6	Hanyang University	Seoul
7	Chung-Ang University	Seoul
8	Sogang University	Seoul
9	Dongseo University	Seoul
10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hang
38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39	University of Ulsan	Ulsan
40	Hallym University	Changwon
41	Wajung University	Daegu
42	Dongseo University	Busan
43	Kwangjuon University	Seoul
44	Gang A University	Busan
45	Inje University	Gimhae
46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47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48	Gangju University	Gyeongju
49	Dong Eui University	Busan
50	Kunshan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Gumi
51	Kyunggi University	Seuon
52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3	Kunsan National University	Gunsan
54	Wonsong University	Daejeon
55	Yong-in University	Yongin
56	Korea Aerospace University	Goyang
57	University of Incheon	Incheon
58	The University of Suwon	Hwaseong
59	Sangju University	Seoul
60	Sun Moon University	Asan
61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62	Hannam University	Daejeon
63	Buse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san
64	Kyungpook University	Masan
65	Seonshunhyang University	Asan
66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Cheonan
67	Dongmin University	Naju
68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Siheung

동서대는 전체 42위로 부산 지역 사립 대 중 1위이고, 부산대, 부경대와 함께 부산 지역 톱 3다. 전체 순위에서 살펴보면 44위 부산 동아대, 52위 진주 국립경상대, 59위 서울의 상명대보다 높은 순위다. 다시 말해 지역의 국립대와 서울의 유명 사립대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선별해 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웹 인텔리전스 소스(Web Intelligence sources)가 제공한 공정한 웹 매트릭스(Unbiased Web Metrics)를 기반으로 평판도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공한 데이터는 전혀 참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학의 글로벌 특성화 발전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웹 정보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국내보다 국외에서 대학이 가지는 국제화 역량을 비교적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 평가에 대해 장제국 총장은 “동서대가 대학의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실을 맺은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더욱 세계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는 대학을 향해 정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 대학 순위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조사
uniRank는 200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1만3,600여 개의 대학 및 대학의 리뷰와 순위를 제공하는 세계 유수의 국제 고등 교육 기관 디렉토리 및 검색 엔진이다.

uniRank는 학업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오래된 방식이 아닌, 시대의 추세에 맞게 웹을 기반으로 대학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실시해 평가를 한다.

uniRank의 목적은 웹기반 대학의 인기와 정보탐색 요구, 대학방문 빈도, 정보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세계 대학 정보 및 대학의 글로벌 순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대학이 외국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관심을 받는 대학인지 등 국제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대학이 제공한 데이터 없이, 오롯이 대외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대학의 실질적인 인지도와 평판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uniRank는 현재 ‘고등 교육부 또는 정부 공인 기관 또는 지역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및 인가를 받은 대학’, ‘최소 4년제 학사 학위 및

대학원 학위(석사 및 박사 학위)를 부여 할 수 있는 대학', '현장 시설을 통해 전달되는 대면 학습 형식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대학'만을 대상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2년제 학위 수여기관이나 원격 교육기관, 신학 및 사법기관의 고등 교육기관은 순위 선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년에 2회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만, 데이터는 매월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대학에 대한 관심도와 인기 등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는 uniRank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DSU

동서대의 이러한 성과는 국제화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다. 동서대는 2002년 'Top Ten & To the World'를 선포한 이래 국제화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동서대는 전 세계 38개국 217개 대학 및 도시 연구소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인턴 계약을 체결해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국제경험을 쌓고 있다. 현재 동서대에서는 재학생 1,000여 명이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가 공부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고, 반대로 64개국에서 1,100여 명이 동서대로 유학을 와 있을 정도로 국내 안팎으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동서대는 세계 각국의 젊은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동서대 학생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며 우수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외국 유수대학과의 공동 학위수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동서대학교만의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은 '남다른 국제화 전략'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 대학들과의 연계를 통해 매년 각국에서 번갈아가며

'Asia Summer Program(ASP)'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아시아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과목의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Global Access Asia(GAA)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를 양성하고자 한·일·중 3개국 정상 합의에 의해 추진된 Campus Asia 사업을 진행할 국내 10개 대학에 선정됨으로써 학생들이 한국, 일본, 중국을 오가며 공부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에 설립된 캠퍼스에 파견되어 공부하는 Study Abroad Program(SAP)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적 소통능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는 International College 역할을 강화하고 '2+2 과정'을 확충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Pride of D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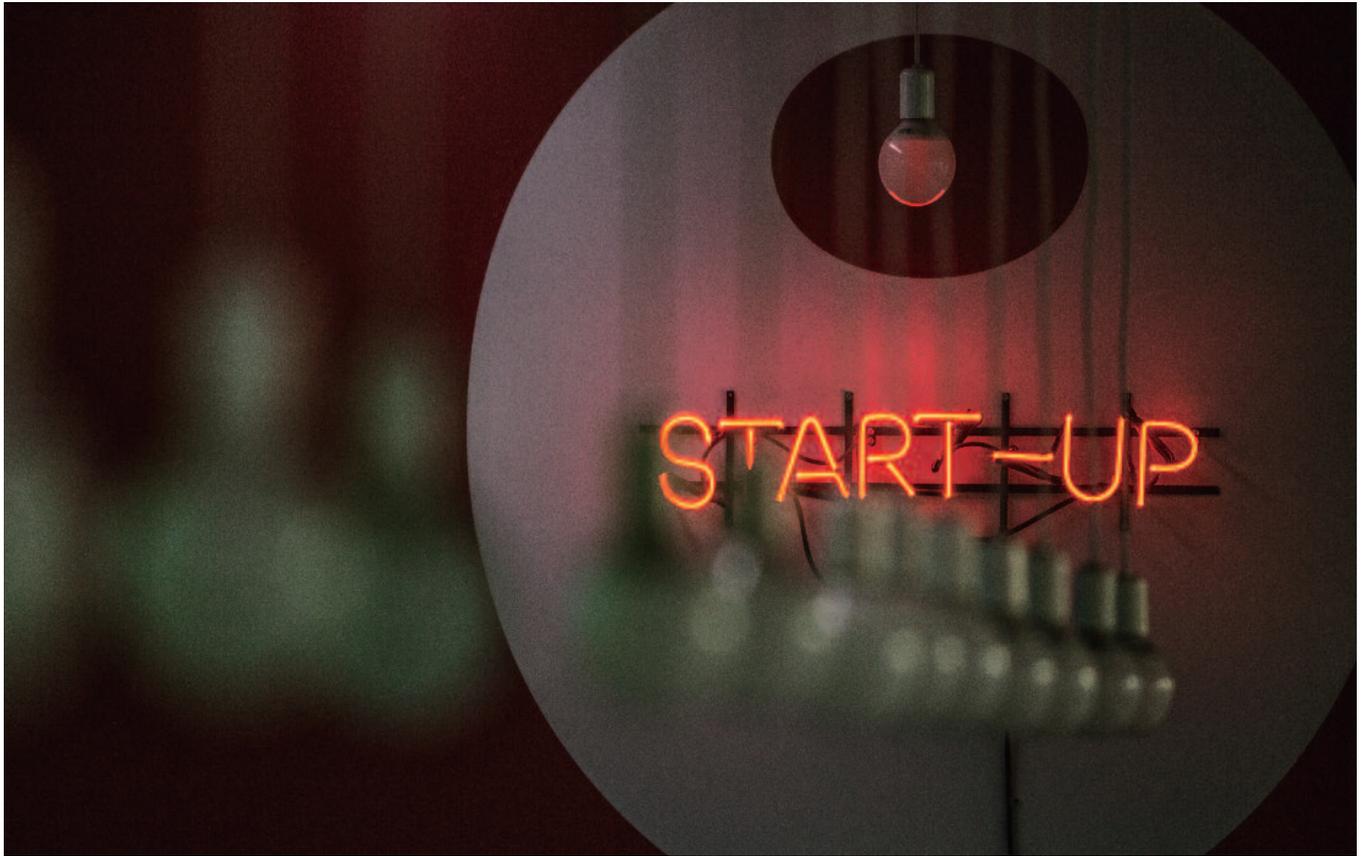
성공적 미래를 약속하는 성과들

정부 지원사업으로 탄탄한 교육기반 구축 ACE+ 사업, LINC+ 사업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대학을 선정해 4년 동안 지원하는 ACE+사업. 동서대는 2017년, 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ACE+사업에 선정되었다. 동서대 ACE+사업은 학생 개개인의 달란트(재능)를 찾아내고 개발해 스스로 브랜드화하는 교육이다.

이와 동시에 동서대는 교육부 대학재정 지원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업인 LINC+사업도 운영 중이다.





동서대 취업·창업 평가 부산·울산·경남 1위

‘2018 대학 취업·창업 역량 평가’에서 전국 295개 대학 평가한 결과

개교 이후 취업과 창업, 특성화에 힘을 쏟은 결과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국내 최초로 전국 대학들의 취업·창업 역량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개교 이후 줄곧 학생들의 취업·창업과 특성화에 힘을 쏟아온 동서대학교가 ‘2018 대학 취업·창업 역량 평가’에서 부·울·경 권역 4년제 대학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국내 4년제 대학 162개와 전문대 133개 등 29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신문」과 조사전문업체인 ‘글로벌리서치’, ‘한경캠퍼스 잡앤조이’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로는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 중 취업·창업과 관련된 8개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동서대는 학생당 창업전용공간 규모에서 전국 4위를 기록

하는 등 가중치를 부여받아 부·울·경 권역 1위, 종합 15위, 사립대 13위, 대구·경북·강원·부산·울산·경남권 3위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명문대들은 취업과 창업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둔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번 평가 결과 고려대가 종합 3위에 오르는 등 실제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의 취·창업 역량, 수험생의 대학 선택에 큰 기준될 것

전국의 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결과는 동서대가 뛰어난 취업·창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동서대는 그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

성사업(LINC+)과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대학, K-Move 스텝사업(해외 취업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재학생의 취업·창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가 이번 평가로 이어졌다.

「한국경제신문」은 수험생의 수시 및 정시 대학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 평가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대학의 취업·창업 역량이 수험생의 대학 선택에 큰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모든 교수와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학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학년도 입시에서 풍성한 수확

수시모집 1만 3,823명, 정시모집 2,675명 등 총 1만 6,498명 지원
수시모집 경쟁률 7.05대 1 / 정시모집 경쟁률 4.02대 1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경쟁률 보여

동서대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2019학년도 입시결과에 따르면 수시모집 1만 3,823명, 정시모집 2,675명 등 전국 수험생 1만 6,498명이 동서대에 지원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존 대학의 모습에서 탈바꿈해 '미래형대학'으로 빠르게 체제 이동을 하고 있는 동서대에 그들의 꿈과 밝은 미래를 맡긴 것이다.

2018년 9월 14일 마감된 2019학년도 동서대 수시모집에서는 총 1만 3,823명이 지원해 7.0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원외 포함, 총 모집정원은 1,962명이다. 정원내 모집 1,829명에서는 1만 3,163명이 지원해 7.2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시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

집 단위는 53대1의 경쟁률을 자랑한 임상병리학과(교과성적)였다.

1월 3일 마감한 정시모집에서는 670명 모집에 2,675명이 지원해 4.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서대의 미래 경쟁력이 선택 이유

동서대가 입시에서 해마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대학의 국제화와 특성화가 앞서 있고, 갈수록 대학의 미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대의 국제화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동서대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100여 명에 이른다. 동서대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대략 9명 중에 1명이 외국인 학

생이다. 유학생들의 국적은 가나, 과테말라, 독일, 멕시코, 미국, 불가리아, 스웨덴, 일본, 중국, 칠레, 핀란드 등 64개국이다.

국제화의 실적은 국제적인 빅데이터 평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유명 빅데이터(Big Data) 기반 세계대학 정보 서비스인 uniRank는 최근 2018 부산지역 상위 14개 대학 '세계인 평판도' 평가를 발표했다. 이 평가에 따르면 동서대가 부산지역 사립대학 중 평판도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2019학년도 입시에서도 변함없이 동서대를 믿고 선택한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입학한 학생들이 동서대를 졸업할 때는 몰라보게 성장한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가는 동서대 보건의료계열 작업치료학과 부산광역시 최초, 세계작업치료사연맹 인증 교육기관 선정 국가고시 100% 합격

세계 73개국에서 인정받은

작업치료학과의 교육과정

동서대 보건의료계열 작업치료학과는 부산광역시 최초로, 2018년 8월부터 2025년까지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교육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동서대 작업치료학과가 2011년에 개설

된 이후 7년 동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교육을 수행해 왔음을 입증한 것이다.

동서대 작업치료학과는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20여 개 기관과 실습협약을 맺고, 국내 최고 수준의 임상실습교육을 학생 1인당 1,000시간 이상 시행하고 있다.

부·울·경 권역 유일,

국가고시 5년 연속 100% 합격 달성

동서대 작업치료학과는 부·울·경 권역에서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된 대학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2014~2018년)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100% 합격률을 달성하였다.

작업치료학과는 방학과 학기 중에 다양한 특강과 자율학습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학생들이 상호 지지 및 격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낙오자 없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세계작업치료사연맹은 1952년에 설립되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7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산하 기구로 작업치료의 발전을 위해 각국의 작업치료협회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국의 대학에서 진행되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교수진 등을 평가하여 연맹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증하고 있으며, WFOT 기준에 부합되는 학교 졸업자는 '회원국 간 학력 인정 및 면허취득 기회'가 동등하게 인정된다.

세계의 중심에서 DSU를 외치다

SAP 체험기 _ 미국·중국·일본

SAP-USA

가슴을 뜨겁게 채워준
아메리칸드림

클_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방송영상전공 임재혁

1



2

SAP(Study Abroad Program)는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과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미국(호프국제대학)과 중국(중남재경정법 대학), 일본(일본경제대학)에 있는 자매 대학 캠퍼스에 한 학기 동안 해외 파견을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의 지원 아래 전공과 어학공부를 동시에 수행 하며 해외문화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8년에는 260명의 학생들이 각국의 캠퍼스에서 성공적으로 연수를 마쳤다. 그중 세 명의 주인공들이 연수 기간에 보고 들으며 몸소 느낀 체험을 들여보도록 하자.



1 라스베이거스 올드타운 앞에서 2 호프국제대학 캠퍼스 전경 3 라 하브라 고등학교 풋볼 경기 4 수업 풍경 5 할리우드 거리에서 스트리트 공연을 기다리며

호프국제대학 입성기

미국 SAP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영어를 제2의 모국어로 그 나라의 문화,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언어학습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미국 캠퍼스 자체 프로그램으로 풋볼 리그, 홈파티, 할로윈 등 미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사회 활동 참여 기회가 많다. 동서대 미국 캠퍼스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는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플러튼 지역에 위치한 기독교 비전 국제대학인데, 캠퍼스는 작은 편이지만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명문 기독교대학으로 지난해 개교 90주년을 맞았다.

학교에는 많은 시설이 있지만 특히 내가 알차게 이용했던 시설은 스튜던트 센터와 도서관이다. 동서대의 스튜던트플라자와 같은 스튜던트센터에는 카페테리아, 피트니스센터, 실내체육관, 우체국 등의 편의시설과 주요 사무실이 모여 있다. 카페테리아 'the Commons'에서는 포인트제로 주당 15회의 식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정된 시간에 배식을 받지 못할 경우 'Hub'라는 곳에서 샌드위치나 브리또 등 다른 간편식으로 밀 스와이프(Meal Swife)를 할 수 있다. 한편, 이곳의 도서관은 도서 대출기간이 한 달로 긴 편이라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학기에 접어들 때쯤이면 동서대에서는 미국 SAP 합격자를 발표하고, 여기 미국 캠퍼스에서는 기말고사와 더불어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번 학기 SAP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펼쳐진 대회의 주제는 '한국사회의 최신 이슈'였는데, 약 5분 가량의 발표 내용으로 예선을 거쳐 최종 5인을 선정해 본선 발표를 하는 시스템이다. 아쉽게도 나는 콘테스트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다른 학생들의 다양한 발표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미국 문화의 정수, 풋볼 그리고 우버

미국 스포츠 문화의 중심에는 풋볼(미식축구)리그가 존재하는데, 풋볼은 미국인들의 삶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프로리그 경기가 펼쳐지는 날에는 기차역 전체가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차고, 경기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음식점에 모여 함께 응원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다. 미국 문화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풋볼 경기를 관람해보라는 말이 있어, 고교 풋볼리그 경기일을 노렸다. 마침 인근의 '라 하브라(La Habra) 고등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날이었다. 30분여를 기다렸다가 입장해서 마침내 관람한 풋볼경기! 맛있는 먹거리를 판매하는 부스부터 다양하게 펼쳐지는 공연까지, 오감을 채워주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 스포츠 게임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 같은 느낌이었다.

너무나 크고 넓은 대륙의 스케일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교통수단은 가장 고민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호프국제대학 캠퍼스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만 해도 한국 면적의 4배에 달할 정도니,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규모가 실감났다. 이렇게 거대한 국가인데 반해 대중교통 시스템은 형편없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환승도 안될 뿐더러, 기본 배차간격 1시간 이상에 10분 연착은 애교 수준이었다.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것이 우버인데, 쉽게 생각하면 유료 카풀 같은 개념이다. 우버의 기사들은 전문기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우버 드라이버 라이선스는 믿고 이용할 만하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도로 트래픽 상황을 계산해 도착 소요시간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고, 이 금액은 미리 사전 등록해둔 카드로 결제되는 아주 간편한 시스템이다.

SAP-China



중국 전통의상 패션쇼에서 친구들과 함께 (아랫줄 왼쪽에서 두번째)

내 생애 가장 치열했던 나날들, 우한에서 보낸 6개월

글_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김혜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들

동서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남재경정법대학(이하 중남대학)에서 유학생 생활을 시작했다. 중남대학은 우한 내에서 상위권에 드는 명문대학으로 면학 분위기가 또한 상당히 뜨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수업료와 전형료, 기숙사비를 완납하고 유학생생활 동안 사용할 휴대폰 유심과 학생증을 만들었다. 학생증 발급 시에는 4장의 증명사진이 필요하니 참고해 두자. 기숙사 생활에서 사용하게 될 전기와 수도 사용요금은 카드로 결제하는데, 카드는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첫날을 정신없이 보내고 맞은 둘째 날, 아침 일찍 분반시험을 치렀다. 분반은 초급반, 초급2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뉘어있는데, 초급반은 발음이나 성조 등 완전 기초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이고 당연히 뒤로 갈수록 최강의 난이도를 자랑한다. 초급반과 초급2반의 난이도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준비기간을 거쳐 초급2반 정도부터 시작하면 좋을듯하다.

한국 인터넷, 어플 사용에 필수인 VPN

VPN(Virtual Private Network)이란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함께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안 솔루션 중 하나다. 쉽게 말하면 가상사설망으로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해 회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해외에서 체류 중일 때 한국의 인터넷이나 영상, 어플 등 웹 기반 콘텐츠를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특히 중국은 규제가 더욱 엄격하므로 VPN 사용이 필수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무료 VPN서비스로는 터보 VPN과 MASTER VPN 등이 있는데, 무료인 만큼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잘 안 되고 속도도 느린 편이다. 함께 간 친구와 비용을 분담해서 유료 VPN 서비스 이용을 추천한다.

중국의 화폐, 위안

중국의 공식 화폐는 인민폐(RMB)이며 금액 숫자 뒤 '원(위안)'이 붙는다. 하지만 우한에서는 위안보다 '快(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다. 특기할 만한 것은 1위안이 지폐와 동전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점. 동전으로 된 1위안은 주로 마트에서 많이 사용한다. 또 1위안보다 더 작은 0.5/0.1 단위의 동전 화폐도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화폐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단위로 존재하는 '1원'의 개념과 비슷하다. 이 역시 마트에서 많이 사용되고, 읽을 때에는 '毛(mao)'라고 발음하면 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는 '현금보단 카드가 편해!'라고 하는 카드족이 있

을 텐데, 미리 말하자면 중국은 카드가 존재하지만 없는 것과도 같다. 이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아,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한국 TV 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사람도 있겠지만, 중국은 QR코드 결제시스템인 페이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 주로 쓰푸바오나 위챗페이를 잘 사용하는데, 각 상점마다 QR코드가 있고 여기에 나만의 페이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상품 값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 같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직접 읽고 쓰며, 몸소 느껴 배운 중국의 문화

수업은 기숙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원타이'라는 건물에서 이루어지는데, 한 학기동안 모든 수업이 이루어질 공간이므로 미리 건물 동선을 익혀두면 좋다. 커리큘럼은 듣기, 말하기, 쓰기, 종합, HSK, 서예까지 총 6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수업은 아침 8시부터 시작된다. 한국보다 1시간 빨리 시작하는데다가 러닝타임 역시 1시간 35분으로 제법 긴 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엔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다. 하지만 다른 과목과 달리 HSK와 서예는 시험이 기말고사 한 번뿐이라 조금 수월했다.

다음은 대학교에서 빠질 수 없는 축제! 지난 2018년은 중남대학 개교 70주년·한중교류 10주년을 맞이해 풍성한 축제와 행사 소식이 가득했다. 유학생 참여 행사로는 중국어에 관한 시 낭송, 춤, 노래 등 다양한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 중국어 대회가 열렸는데, 나는 친구와 함께 K-POP('심쿵해' 중국어 버전) 댄스를 열심히 준비한 끝에 인기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중국 전통의상 패션쇼 행사를 준비하면서 중국의 풍습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인기상을 수상했던 K-POP 공연



SAP-Japan



후쿠오카 도심의 거리에서 한 컷

전공공부와 일본 문화체험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글_ 글로벌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최하나

출국 전, 도착 후 준비해야 할 것들

출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개인 도장과 재류카드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사인(서명)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도장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도장은 꼭 필요하다.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에 한해 공항 입국절차시 발급되는 재류카드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늘 몸에 소지하는 것이 좋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 학기 동안 세상과 나를 이어줄 정보통신 휴대폰을 연결시켜주는 일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일본 현지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은 유심 구입, 로밍, 포켓 와이파이, 기숙사 와이파이 계약 등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일본 내에서 선불 휴대폰 구입 등 총 다섯 가지가 있다. 큰 부담 없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포켓 와이파이이다.

학교시설과 클래스 커리큘럼

일본경제대학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푸릇한 조경녹지와 아기자기한 시설물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캠퍼스 모습이 꽤 아름답다. SAP 학생들은 국제관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데, 로비와 강의실, 상담실, 휴게소 등으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점심식사는 캠퍼스 위로 쪽 건다보면 나오는 메모리얼 홀 옆 카페테리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제관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한국과는 다르게 식사시간이 40분으로 짧은 편이라서 스피드를 요한다.

수업 시간표는 한국처럼 학기 시작 전에 정해지고, 일본어 난이도에 따라 다른 분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날짜마다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수업을 마친 뒤 교류회사 체험학습을 떠나는 날도 있다. 수업은 기본서 한 권과 매 수업마다 나오는 교수님별 리포트로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일본어, 인문, 경제, 자연, 그리고 일본 사정(事情)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정 시간에는 교수님마다 준비해 오신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필기를 하거나 레포트를 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정규 수업시간은 1시간(수업 50분, 쉬는 시간 10분)임에 반해 이곳 일본 대학의 정규 수업시간은 100분(수업 90분, 쉬는 시간 10분)이다. 시험 역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고 한 학기 학점을 받

는 한국과 달리, 기말고사 한번만으로 학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죽음의 12월'이라 불리기도 한다.

잊지 못할 현장체험 학습

일본은 아사히, 기린, 에비스, 산토리, 사포로 등 맥주가 유명한 나라인데, 그중 후쿠오카 기린맥주공장에 견학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학교 현장체험 학습으로 다녀왔다. 담쟁이덩굴로 꾸며진 한쪽 벽면에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커다란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공장 안은 전시관과 견학관으로 잘 꾸며져 있었다. 이곳에서는 맥주 원료인 맥아와 홉 등을 시식해볼 수 있고, 맥주 제조공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견학을 마치고 무료 시음해본 샘플 맥주의 맛은 기가 막혔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토요타에 현장학습을 나갔던 일도 유독 기억에 남는다. 현재 개발 중인 자동차와 판매되는 차 전시장은 물론이고 토요타의 역사와 자동차 공정 모습을 담은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미니 시어터도 구비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근처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떡 만들기 체험에 참가해 맛있는 떡을 만들어보는 등 재밌고 유익한 체험학습이 많아 학기 내내 알차고 풍성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알고 타면 더 좋은 지하철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일본 후쿠오카의 교통수단은 지하철, 버스가 대표적이다. 택시도 있지만 알다시피 일본의 택시비는 보통 멘탈로 탑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편이다. 일본의 지하철 노선은 대부분 지상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 현지에서는 지하철보다 '전차'의 의미가 더 정확하다. 특이한 것은 노선의 역마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인데, 여기서 색깔은 속도를 의미한다. 빨간 색은 특급, 파란 색은 급행, 초록 색은 보통(각 역 모두 정차)이라 생각하면 된다. 빨간 색과 파란 색 전차는 그 색깔로 표시된 역에만 정차하니 노선별 역명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지하철만큼 잘 발달되어 있는 후쿠오카의 또 다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서는 100엔 버스가 특히 유명하다. 웬만한 도심은 100엔 버스의 노선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스팟은 텐진, 나카스, 하카타역 정도다.

깜찍한 피카츄 인형과 함께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는 상상, 현실이 되다

임보라의 글로벌 도전기

글
디자인대학
Product Innovation 루트
임보라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 증독자

2017년 나는 큰 꿈을 안고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에 입학했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설렘과 잘해보고 싶었다. 무엇보다 1학년 때부터 글로벌 경험을 많이 쌓아 세계 어느 무대에 내놓아도 통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었다. 가장 처음 도전했던 것은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서 글로벌 영어 프로그램'이었고 운 좋게 합격하여 열심히 영어 실력을 갈고 닦았다. 이후 1학년 여름방학 때는 미주 캠퍼스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한 달간 연수를 받으면서 미국 생활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미국 연수를 다녀온 그해 여름방학에는 'ASP 2017(Asia Summer Program)'에 지원했고 감사하게도 참여할 수 있었다. 중국 광둥외국어위대학교에서 계절학기를 듣고 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여러 국가의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외국인 친구들과 방도 함께 사용하게 되면서 더욱 교류하기 좋았다.

다음 도전 무대는 유럽이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과감하게 헝가리 'Szent Istvan University' 교환학생 신청을 했고, 역시 감사하게도 합격할 수 있었다. 전공수업 한 학기를 비워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지금 아니면 다시 해보지 못할 경험일 것 같아 용기내서 떠날 수 있었다.



1



2



학교생활도 여행도 모두 열정적으로 임했던 헝가리 생활

궁전을 연상케 하는 학교 건물을 비롯해, 교정에 심어져 있는 다양한 나무들과 넓은 산책로까지 모든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덕분에 하루하루 열정적인 자세로 학교생활을 해나갔다. 게다가 기차역도 가까웠는데, 기차를 타고 40분만 가면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닿을 수 있었다. 헝가리는 물가도 비교적 저렴해서 유학생들이 생활하기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이곳에서 나의 전공은 '경영과 사회과학' 분야였는데, 헝가리에서의 수업은 정말 신선하게 와 닿았다. 우선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진도를 빼기 급급한 수업이 아니라, 중요한 주제를 정해 자주 열띤 토론을 펼쳤고 그런 과정에 몰입하다보면 어느새 수업은 끝나곤 했다. 1교시가 8시 15분으로 빠르다는 점은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빨리 마치기도 했다. 대부분의 일과는 오후 3시 안에 종료되곤 했다. 영어로 진행되는 시험과 발표, 외국인 친구들과의 조별과제도 모두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하고 나니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묻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

공식 수업 외에도 ESN(Erasmus Student Network) 또는 ELB(Erasmus Life in Budapest)라는 유럽 대학생 교류 제도에 참여했는데 Lazer tag, Go kart, 방탈출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헝가리에 가기 전 내 목표 중 하나는 여행 등을 통해 유럽 문화를 많이 접하면서 인문학적인 교양을 키우는 것이었다. 유럽 내에는 다양한 저가항공사와 기차를 통해 인근 국가로 여행 다니기 좋기 때문이다. 개강하기 전과 학기 중의 휴일 그리고 종강 후를 노려서 틈틈이 부지런하게 여행을 다닌 결과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체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총 9 개의 나라를 둘러볼 수 있었다.

기회를 준 학교에 감사, 도전은 현재진행형

그간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점도 좋았지만, 우리 학교에만 머물렀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다른 국가, 다른 전공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좋았다.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과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은데 같이 추억을 쌓으며 이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즐거운 일이다.

또한 새로운 경험과 동시에 새로운 목표들을 갖게 되고, 이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배운 점이 많았다.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앞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의 직업만으로 평생을 보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분야만 공부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서 남은 대학생활 중에도 다양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나의 2년 남짓한 대학생활 동안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을 다니며 다양하고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동서대학교에 감사한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학교의 지원으로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나의 디자인에 잘 녹여 내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밖임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경험과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생각이다.

- 1 헝가리 부다페스트 켈레르트 언덕
- 2 디즈니랜드에서
- 3 미국 유타주에 있는 브라이스 캐니언

- 4 Szent Istvan University 건물 중앙정원
- 5 동국대, 강원대 교환학생들과 함께한 International dinner(Korea team)





International College

글로벌 교육의 새 바람이 되다



전국 곳곳, 세계 곳곳의 대학에서 ‘글로벌’을 외치지만 동서대만큼 글로벌 교육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시설과 커리큘럼을 갖춘 곳은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다.

동서대의 글로벌 교육을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다른 아닌 ‘International College’다. 동서대를 넘어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9년 새롭게 설립된 International College는 청춘의 열정과 꿈을 꽃피울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무대가 되어주고 있다.

GSI에서 IC로! 전 교육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혁신적 교육 플랫폼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과 교육 편의를 위해 운영되던 동서대 GSI가 2019년부터 International College(이하 IC)로 재탄생한다. GSI가 IC로 재편됨에 따라 글로벌 전공과정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예정이다.

기존 GSI에서 진행하던 글로벌 경영학(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Studies, 영화(Film&Video),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 컴퓨터공학(Computer Engineering), 임상병리학(Biomedical Lab Science) 전공에 2017년 신설된 동아시아학과와 한국어비즈니스연계전공이 함께 포함되어 운영된다.

IC에서 운영되는 전 전공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IC는 전공 관련 학사학위 프로그램 외에 전공과정, 한국어 또는 영어과정, 교양과목을 수강하여 학점교환이 가능한 프로그램(Credit Program)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국내외 교수진들은 역사, 예술, 영화, 비즈니스, 회계, 음악, 컴퓨터 프로그래밍,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다. 학점 프로그램 역시,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며, 유학생들은 국내 학생들(동서대 재학생)과 함께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글로벌 마인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의 문화, 학생들의 열정이 한 데 모이는
소통의 공간**

IC는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 세계의 문화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International Culture Night, International Day, Reflection: Academic Forum, Closing Ceremony, Student Club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의 리더십과 인성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학업이 아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 스스로가 성장하고 개발해 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다.

International Culture Night은 동서대에서 유학 중

인 가나,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웨덴, 일본, 중국, 캄보디아, 핀란드 등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매년 자국의 노래와 전통춤 등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International Day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며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한 나라의 각 팀은 자신들의 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춤과 음악, 음식 등을 선보이고, 세계 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술활동이나

동서대 글로벌 프로그램의 핵심인

IC에서 세계의 문화와 언어가 하나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클럽 활동도 함께 지원해 학술 교류와 친선도모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보여주기 위한 학술 포럼인 Reflection: Academic Forum에서는 특강, 학습능력 강화프로그램 결과 발표,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전공 및 비전공분야에 대해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선보인다.

매학기 수료식인 Closing Ceremony는 학기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한 대학생활 성찰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형성, IC 외국인 유학생 학기 종료를 축하하는 자리이다.

또한 Student Club을 통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인 재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의 교류와 친선도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클럽활동은 영어로 진행되며, 매 학기 Art, Music, Sports 등 다양한 클럽에 외국인 및 한국인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학업 외 프로그램들은 동서대 학생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 조성, 동서대 유학에 대한 매력 제고, 졸업 후 IC 동문회 조직을 위한 디딤돌 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International College

Passion



Awards
Career
I'm DSU



꾸준한 융합교육이 이룬 결실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4년 연속 위너 선정

LINC+사업단 '융합 캡스톤디자인' 통해 디자인 대학, 컴퓨터공학부 학생들 공동 작품 제작

동서대는 2015년부터 4년 연속, 총 7개 작품이 레드닷 어워드 위너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선정된 작품들은 LINC+사업단의 교육 프로그램인 캡스톤디자인 수업(교과목 : 아이디어이션 실습, 지도교수 : 문미경 교수(컴퓨터공학부), 류도상 교수(디자인대학))을 통해 만들어졌다. 올해 수상작은 ▲위승현, 이현우(컴공), 김성재,

한지아(디자인) 학생이 제작한 운전자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홀로그램인 'Safety Hologram(현대자동차)'. ▲김도현, 박형권(컴공), 이세명, 이우진(디자인) 학생의 청각장애 무용수를 위한 진동 센서인 'Feel the music vibrating for a hearing impaired Dancer'. ▲신민호, 이호섭(컴공), 윤지훈, 김규리(디자인) 학생의 캔과 캔끼리의 손쉬운 결합을 가능하게 한 'Lock & Roll(롯데)'이다. 2018년 공모전에는 전 세계 45개국에서 8,600

동서대 디자인대학과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의 콜라보로 제작된 융합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이 '2018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Award : Communication Design)'에서 위너로 선정되었다. 그것도 무려 세 작품이나 말이다.

여 개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세계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24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 세계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모이는 그곳에서 동서대 학생들이 당당히 겨뤘 이번 해에도 위너로 선정된 것이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갈라쇼,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는 10월 26일 베를린(독일)에서 열렸다. 아울러 수상작품은 '2018 Red dot Communications Design Yearbook'에 실리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위승현·이현우(컴공), 김성재·한지아(디자인)

Driver's secondary car accident prevention

Safety Hologram

Secondary car accident

Each year around 1.25 million people die from traffic accidents around the world. Among them, the death rate caused by secondary accidents is six times higher than deaths caused by primary accidents. Secondary car accidents are defined as accidents caused by not being aware of existing accidents on the road.

Solution

- The car is stalled in the middle of the road due to a mechanical malfunction.
- The driver places the Safety Hologram on top of the trunk of the car and turns it on.
- Without the need of the driver, the Safety Hologram projects a sign visible to vehicles nearby.
- All vehicles nearby is now aware that there is an accident.
- The warning sign allows near vehicles to change lanes for safety purposes.
- Traffic continues with no additional accidents.

Technical description

The Safety Hologram technology is made out of 'Optical Trap Display'. OTD technology is not a projection of an image onto a conventional transparent display or glass, but a technology that creates a desired image by illuminating a laser on particles in the air layer. OTD technology is an efficient technique for controlling particles in the micrometer (1 millionth of a meter) size.

Photo Source: Brigham Young University

수상작

**운전자의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홀로그램
Safety Hologram(현대자동차)**

위승현·이현우(컴공), 김성재·한지아(디자인)

문제점 2차 사고는 일반사고 치사율의 6배에 달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다.

해결방법 ‘Optical Trap Display(이하 OTD)’라는 기술은 기존의 투명 디스플레이나 유리에 영상을 투영하는 것이 아닌 공기층 내의 입자에 레이저를 비춰 원하는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다. OTD 기술로 우리가 구상하는 안전 홀로그램 장치 또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청각디자인 댄서를 위한 진동센서

Feel the music vibrating for a hearing impaired Dancer

김도현·박형권(컴공), 이세명·이유진(디자인)

문제점 청각장애인 무용수는 비장애인 무용수에

비해 정확한 박자에 맞춰 춤을 추고 동작을 익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박수 소리를 음악으로 착각하거나 음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춤을 계속 추는 상황이 생긴다.

해결방법 앱 Feel the silent music과 블루투스를 연결하여 박자의 길이와 세기를 앱으로 등록한다. 앱에 등록된 음악은 의상과 연결된 센서를 통해 진동으로 표현된다.

캔과 캔 사이 결합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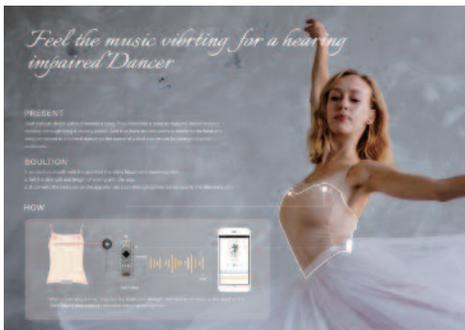
Lock & Roll(롯데)

신민호·이호섭(컴공), 윤지훈·김규리(디자인)

문제점 자판기에서 많은 캔을 뽑아서 이동할 때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캔음료의 윗부분을 스크류 방식으로 돌려서 맞춰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켜준다.

해결방법 캔의 상단 홈과 하단 돌출부를 스크류 방식으로 돌려 잠그는 형태이다. 캔과 캔끼리의 손쉬운 결합이 가능하다.

김도현·박형권(컴공), 이세명·이유진(디자인)



신민호·이호섭(컴공), 윤지훈·김규리(디자인)



수상 소감 Talk



디자인대학 4학년 김성재 학생

“우리의 아이디어가 레드닷 어워드 심사위원들에게 인정을 받아 뿌듯했습니다. 대학생활 중 하나의 목표를 이루게 되어서 기쁘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컴퓨터공학부 4학년 위승현 학생

“아이데이션 수업을 통해 컴퓨터공학부와 디자인 학부가 융합함으로써 그동안 생각지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고 개발과 디자인 측면에서 더 높은 완성도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d dot design award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란?

독일 IF,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1955년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



“벌써 올해 00살이다”, “취업해야 하는데”, “00공부해야 하는데”... 새해가 시작되고 주변에서 들렸던 친구들의 이야기였다. 새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취준생들이다. 나 역시 1년만 더 채우면 졸업을 하게 되니 이러한 걱정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새

해가 오는 것이 기대됐었다.

한국방송학회 주최, GS SHOP의 후원으로 모집한 ‘CES 2019 대학(원)생 참관단’에 선발되어 1월 8일~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19’에 다녀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글_ 남택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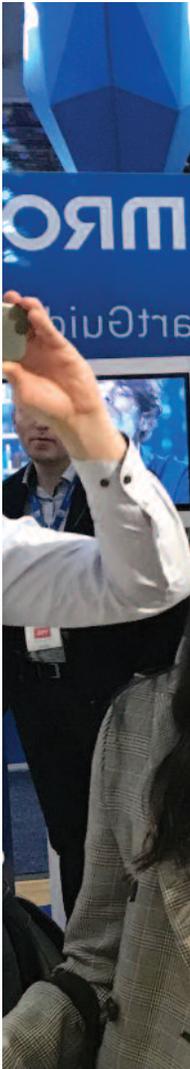
광고PR전공 남택광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를 다녀오다!

‘CES 2019 대학(원)생 참관단 18인’에 선발

삼성, LG, 아마존 등 4,500개 이상 기업 참여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매년 전 세계 다양한 기업이 자신들의 기술, 제품들을 발표하며 홍보하는 자리다. 올해 역시 삼성, LG, 아마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여 본인들의 강점을 뽐냈다. 매년 18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IT 전시답게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축구장 36개를 합친 크기(290만 평방피트)로 펼쳐진 CES 현장에는 4,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저마다의 신기술, 제품들을 선보였다. 넓은 전시장 속 하나라도 더 보고 느끼고 싶은 나는 전시 내내 2만 보 이상을 걸으며 전시장 곳곳을 부지런하게 돌아다녔다(이렇게 걸었음에도, 4일 동안 전체를 둘러보지는 못했다). 다양한 부스를 돌아다니며 곳곳에서 보이는 삼성, LG 등 국내 기업들의 부스 앞에서 외국인들이 놀라운 감탄과 탄성을 쏟아낼 때는 괜스레 내가 뿌듯했다.

다양한 기업들이 모인 만큼 그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들도 가지각색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단연 LG 부스라고 생각한다. 입구에 세워진 OLED 협곡 때문이다. 이는 곡면 OLED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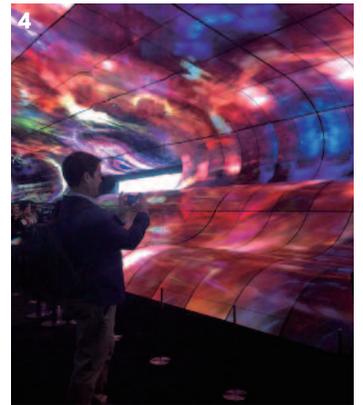
246장으로 설치되어 협곡, 빙하, 폭포 등을 생동감 넘치게 전달하였다. 나 역시 부스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부터 오랫동안 매료되어 발걸음을 뒀 수 없었다. 그 외에도 OMRON의 탁구 치는 로봇, SKT와 SM 엔터테인먼트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DJ 등 기업들은 많은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디지털 헬스케어, 5G 등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던 최신 IT기술

반면에 직접적인 체험 형식으로 서비스를 알리는 기업들도 있었다. 그러한 체험들은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5G,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인해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건강 유지, 질병 초기 발견, 라이프케어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기여한 분야이다. 특히 Philips의 AR Tutorial을 이용하여 발전된 거울인 Personal Care 제품, 그 외 다양한 기업들의 스마트 미러 서비스 제품들은 이용자로 하여금 더욱 편의를 제공해주며 무엇보다 개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드라마 ‘블랙미러’의 소재들이 더 이상



- 1 5G의 인기를 보여주는 웰컴의 거대 부스
- 2 스마트 미러(가운데)
- 3 OMRON의 거대로봇을 구경하는 인파로 가득한 모습
- 4 LG OLED 입구



영화나 드라마 속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체험한 것 중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SONY의 Future of Music이었다.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콘서트장에서나 느낄 수 있는 360도의 공간 사운드를 헤드셋 하나로 구현된 것을 체험하니, 정말 IT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 했다는 것을 몸소 느꼈고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 나오게 될 다양한 콘텐츠, 광고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5G는 올해 CES의 핵심 중 하나인 만큼, 대부분의 기업들이 5G를 기본 전제에 두고 기술을 구현하고 있었다. 5G 활용도를 가장 크게 느낀 것은 8K이다. 8K의 해상도는 UHD 4K보다 4배가 높고, FHD보다는 16배가 높은 초고화질이다. 이러한 화질을 송출한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허나 5G를 바탕으로 시간에 제약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어떤 새로운 콘텐츠가 대거 등장하게 될지 많은 기대를 하게 됐다.

기업과 고객 사이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생각해본 기회

다양한 기업들의 활동들을 보며 'CES 만큼 저마다 확실한 목적성을 지닌 채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장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기업들은 투자, 홍보 등의 목적성을 지녔으며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그들에게 자신들을 어필할 수 있는 장소였다. 거대한 규모의 전시장 속에서도 각 기업들은 기업 간, 참여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을 지켜보며 광고PR 전공자로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매체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나에게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주변 친구들처럼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은 시기지만, CES 2019를 다녀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마음속에 담아왔다. 이러한 경험들은 취업에 대한 걱정거리들을 잠시 잊게 해주었고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CES 2019에서의 경험들이 좋은 기억과 추억, 웃음으로만 남지 않게끔 담아온 모든 것을 다시 심어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꾸준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매력적인 부산의 모습을 담다

다이나믹 부산 UCC공모전에서
동서대 유학생팀 최우수상 수상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 하루 종일 불을 밝히는 도시, 고즈넉한 자연,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즐기는 열정적인 사람들.

부산은 멈춰있기보다 늘 나아가길 희망하는 도시다.

동서대 유학생인 마커스와 리우티카에드비나스, 바지코 그레타, 바지코 블라디슬라브 학생이 부산의 사람들과 장소, 자연, 문화 등 다이나믹한 부산의 모습을 담아 UCC를 제작했다. '다이나믹 부산 UCC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그들의 영상은 현재 유튜브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부산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젊음의 시각으로

부산의 모습을 멋지게 표현

부산시에서 주최한 '다이나믹 부산 UCC 공모전'에서 동서대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최우수상(상금 500만 원)을 수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학생은 마커스(아이슬란드), 리우티카에드비나스(리투아니아), 바지코 그레타(리투아니아), 바지코 블라디슬라브(벨라루스) 학생이다. 이들은 리투아니아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MRU)에서 2+2 과정으로 동서대 디지털콘텐츠학부로 유학을 와서 수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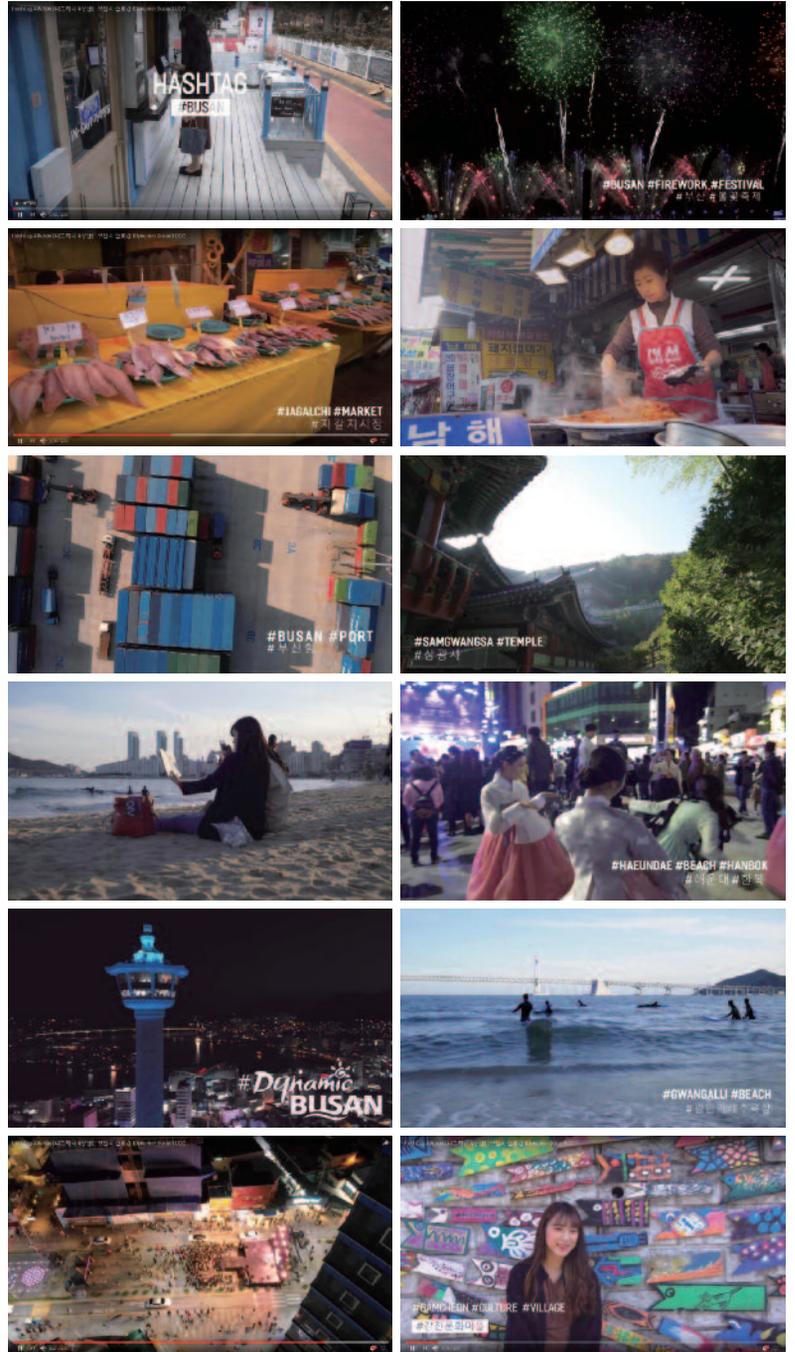
이번 공모전은 부산시 슬로건인 'Dynamic Busan'의 시민 공감과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시상식은 12월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렸다. 심사는 유튜브 조회수 등 작품 호응도를 평가한 1차 심사와 2차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되었다.

동서대 유학생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인 'Hashtag#Busan'은 자갈치, 광안리, 해운대, 감천마을 등 외국인의 눈으로 본 다이나믹하고 매력적인 부산의 모습을 다양하게 담았다.

마커스는 "외국인 그리고 젊은이의 시각으로 부산의 모습을 멋지게 표현해보고 싶었다. 드론 촬영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촬영을 진행했다. 외국인이 촬영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멋진 결과를 얻어서 너무 기쁘다. 영상전문가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동서대 학생들은 최우수상에 이어, 우수상·장려상까지 모두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 대회 ▲우수상(상금 300만 원)에는 '부산의 다, 다, 다!'(동서대 김용권 외 2명) ▲장려상(상금 200만 원)에는 '부산! 아따 직이네~'(동서대 양준범 외 2명)가 선정됐다.

HASHTAG #BUSAN



작품주소 <https://youtu.be/YZDcz4QDyLg>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는 부산의 모습은 정말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고, 이국적이죠. 이번 촬영을 통해 많은 경험을 했고, 영상전문가의 꿈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시야를 넓히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일본 글로벌 기업 라쿠텐 취업 성공기

글_ 컴퓨터공학부 김계영

Rakuten

일본의 대기업, 라쿠텐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취업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한 것은 2016년 12월, 3학년 겨울방학 부터였다. 원래부터 일본에 관심이 많았던 지라 입학 당시부터 일본 기업의 현황이나 기업문화, 복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당사가 일본 기업에 취직하기 좋은 시기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일본 기업을 희망기업 목록에 올렸다. 그중 하나였던 라쿠텐 취업 준비는 취업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인 직원의 취업 수기나 과정을 주로 참고했다.

일본 기업은 한국의 인재들에게 여러 가지 채용 경로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내가 선택한 방법은 일본 취업박람회였다.

박람회를 통한 채용 방식은 먼저, 취업박람회를 주최하는 기관의 사이트에서 채용을 진행 중인 일본 기업 정보를 오픈하고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접수 받는다. 그 후 개별 기업이 서류전형을 통해 자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들을 면접 대상으로 선출한다. 즉, 박람회에서의 면접은 한국에서 흔히 진행하는 모의면접이 아닌 서류전형에 통과한 후 볼 수 있는 실전 면접인 셈이다.



면접의 횟수나 방식은 기업마다 제각각인데 화상통화를 통해 면접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면접은 대부분 일본어로 이루어지지만, 라쿠텐의 경우 영어 면접도 가능하다. 최종합격 후에는 내정안내서 및 근로계약서를 국제 우편으로 송달받게 되고, 여기에 사인하면 입사가 확정된다.

신입 연수부터 부서 배정까지

라쿠텐의 주요업무는 크게 비즈니스 유닛(BU)과 개발 유닛(DU) 두 가지로 나뉜다. 대학 졸업예정자, 즉 신입사원 채용은 주로 BU에서 이루어지고 DU는 중도채용(경력직)을 주로 채용하며 해외인력 역시 DU에서 수급하는 편이다. 나는 신입이었지만 운 좋게 DU의 중도채용직으로 뽑힌 것이다. 입사 직후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6개월의 연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BU와 DU의 연수 코스가 완전히 다르므로 이 부분도 잘 유념해야 한다. DU 연수에는 신입사원이 익혀야 할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뉴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 라쿠텐은 기본적인 공용 언어가 영어이므로 일본어

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류전형에서부터 이미 '토익 800점 이상'이라는 규정을 만들어놓았고, 이를 통과해온 사람들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굳이 언급해주는 이유는 일본 기업이라고 '일본어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금물이기 때문이다. 토익 800점으로도 끊임없는 영어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실전에서의 영어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모든 업무의 8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기도 하고 연수기간 내에 프리젠테이션을 할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역시 영어로 진행하므로 마지막까지 영어에 대한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

연수 종료 후에는 부서를 배정받게 되는데, 나는 전자쇼핑몰인 라쿠텐의 창고 물류 및 주문, 배송관리를 주로 하는 물류관리 부서로 가게 됐다. 부서 안은 다시 여러 섹션으로 나뉘고 섹션은 다시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나는 여기서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배송관리 시스템) 그룹 소속의 엔지니어로 일하게 됐다. 우리 팀은 나를 포함한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미국 5개의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히 글로벌한 면모가 돋보였다.



인맥



후일담 혹은 일본기업 취업을 생각하는 후배들에게 내게는 300명에 가까운 입사동기들이 있다. 연수기간 동안 애뜻한 동기가 쌓이는 것은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타국에서의 동기애는 감정적인 면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6개월 동안은 매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되도록 좋은 사람을 많이 사귀는 것이 좋다.

연수



2018년부터는 DU에서도 신입 채용을 한다고는 하나, 그래도 BU보다는 채용규모가 적을 것이고 나처럼 신입이지만 중도채용직으로 들어오게 될 확률이 높다. 중도채용직 연수에서는 신입사원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명함 교환방식, 자리에 앉는 방식 등)을 들을 수 없다. 이때, DU 연수시 담당매니저에게 부탁하면 BU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을 함께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면접



채용박람회에서 진행되는 면접은 실전 면접이다. 내 경우 면접은 오직 자기소개서의 내용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강력한 자기어필이 중요하다. 기술적인 부분의 답변은 어차피 면접관보다 더 잘 알 수 없고 어느 정도 예상되는 답변이 정해져있기 마련이다. 본인만의 가치관과 신념이 돋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계영(앞줄 가운데) 동문이 팀원들과 사진을 남기고 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광고PR전공
황민철



남다른 끈기와 열정으로 프로 기자의 길에 들어서다

파이낸셜뉴스 예비입사자 2인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The financial news

Q. 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손 저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제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나열하고 이것들의 교집합을 찾아보니, 좋아하는 카피라이팅, 사진, 영상 촬영, 편집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은 '기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교내 수업인 웹진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취재방식에서부터 사보제작까지 배우게 되면서 언론사와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흥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황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별다른 해답을 찾지 못하다가 대학 전공수업에서 주로 다루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더 깊이 배우게 될수록 '소통이 가진 영향력'이 참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자는 다양한 직종의 많은 사람을 만나 소통할 수 있고 각종 사건과 사고, 갈등, 분쟁, 다방면의 정보 등을 취재해 전문적인 지식들을 쌓으며 이를 대중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Q. <파이낸셜뉴스> 입사 준비과정과 취업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황 파이낸셜뉴스 입사 지원을 앞두고 저는 매일 신문구독 및 스크랩을 하며 다양한 종류의 기사를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TV를 보더라도 항상 뉴스가 제일 먼저였고, 책을 볼 때도 뉴스와 관련된 것들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제 지도교수님인 김종필 교수님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괴롭혔는데 교수님께서 매번 긴 시간을 내서 저에게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고 경제 상식과 관련된 얘기들도 해주시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손 먼저 교내에서 진행하는 웹진 관련 클래스는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실전과 흡사한 환경에서 취재 및 기사 작성 등 기자로서의 기본 자질은 물론이고 간행물에 대한 기획 스킬까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언론인을 꿈꾸는 '아랑'> 카페에 가입해 다양한 활동과 정보 공유를 하고, 매일 기사 작성 연습은 물론 직접 콘텐츠 기획부터 취재,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 영상뉴스도 제작해봤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서류나 면접에서 잘 어필했던 것이 강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프로 기자는 오직 정론직필의 기사와 보도로써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 그 작은 변화의 시작점에 자신들의 미래를 건 두 청년에게서 취업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 봤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광고PR전공
손성호

Q.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 중 취업에 특히 도움 되었던 것이 있다면요?

손 먼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일환인 클래스셀링이 가장 힘들었던 만큼 성취감과 보람이 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3학년 1학기 때 후지제록스 클래스셀링 과제를 수행했는데, 실제 기업의 실무진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학교와 기업 양측 모두에 폐를 끼쳐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엔 참 막막했는데 '후지제록스 측에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해서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분석하고 후지제록스 실무자 분들로부터 끊임없이 피드백도 받아서 최상의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제진행능력을 비롯한 현안 분석 및 솔루션 도출 과정, 협업과 책임감 등 기본적인 회사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자양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황 맞아요, 클래스셀링이 끝나고 얻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LINC+ 사업단에서 주최하고 ㈜위크샵에서 실시한 직무맞춤형 취업역량강화 캠프나 교내에서 실시한 취업박람회, 모의면접 등에 참여하면 실전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 작성과 첨삭은 물론이고 실제 취업자 사례를 바탕으로 직무별 도움이 되는 정보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줍니다. 그래도 정말 글쓰기하면 겁부터 날 정도로 작문에 소질이 없다, 짐병이다 생각된다면 우리 학교 글쓰기 클리닉을 이용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작문에 대한 기초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Q. 동세대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황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때 준비를 그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마치 '게임 퀘스트'를 깨듯이 실천하면서 크고 작은 성취감들로 대학생활을 짝짝 채워나갔는데요. 스스로 이런 식으로 흥미를 찾으니 동기부여도 되고 학습 성과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손 학교에 다닐 때는 돈을 주고 단순히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을 받는 입장입니다. 돈을 주고 배우는 입장과 돈을 받는 입장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돈을 받는 입장이라면 어느 분야의 직업이든 그 내용의 질과 작업의 수준은 높아야 할 것입니다. 내용의 질과 작업의 수준을 높이려면 큰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배우는 입장이었을 때 많은 경험과 지식을 연구하고 몸으로 부딪쳐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Interview with
Professor Elena Tsomko

“I wish DSU to become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universities in the world!”

2015년 동서대와 인연을 맺은 엘레나 교수.
그는 ‘글로벌’을 지향하는 동서대의 비전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껴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동서대, 그 속에서 엘레나 교수는
자신과 학생들, 그리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엘레나 교수님!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lena Tsomko입니다. 저는 러시아 동쪽의 작은마을(town) 비로비잔(Birobidzhan)에서 왔습니다. 저는 Sholom Aleichem Amur State University (당시에는 Birobidzhan State Pedagogical Institute)에서 수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그후에 한국의 강원대학교에서 전자통신공학과 전자통신전공 석사과정을 밟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보경영공학과 정보보호전공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동서대학교 International College의 컴퓨터공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공학부 교수로서 무엇을 가르치나요?

저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컴퓨터공학,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경영과 같이 대부분은 기초컴퓨터과학과 관련된 수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 수학, 선형대수, 이산수학 등 수학과 관련된 수업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교수로서 바라 본 동서대는 어떤 대학인가요?

외국인 교수로서 동서대학교는 글로벌화에 강하고 성공적인 대학교로 느껴집니다. 국제교육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세계의 다른 대학교와의 교류를 넓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대 학생들은 활발할 뿐만 아니라 배우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해외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국제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프로젝트를 함께해나가는 활동들은 다양한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서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강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학생들이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엘레나 교수님에게 동서대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동서대는 제 자신을 위한 학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새로운 학습의 방향을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강이 있으면, 저도 가능한 참여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활동들은 미래비전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줍니다.

동서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나요?

저는 동서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적인 성과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대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GSI(현. International College)에서 주최한 첫 번째 문화의 밤(International Culture Night)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특징적으로 표현하면서 공연을 하는 모습이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의 문화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또한 어떤 점이 비슷한지에 대해 배우는 것은 항상 즐겁습니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평소에 학생들에게 수학문제나 알고리즘, 코드를 개발할 때 생기는 실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수를 찾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이론을 배우고 적절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중요한 기술개발의 시대에 태어났으며 ‘스마트 기술’과 ‘인공지능’이 바탕이 된 새로운 환경에서 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커리큘럼 이외의 것들을 배우라고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미래에 학생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교한 기술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활에서부터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실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에 투자하면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을 위해 행운을 빕니다!

Thanks DSU, Thanks Korea!

“Dongseo University give the opportunities they need”

EdvinasLiutika(Digital Contents 17, Lithuania)

My experience in Dongseo University has been very enjoyable and fascinating so far. Since I got here, I've changed in a lot of ways and experienced many things. I've changed in ways I knew I needed to, but wasn't sure if I would be able to. That's why I am so glad I had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Korea to its fullest. From various cultural differences, food

tradition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I've discovered a lot of interesting things that I always watched from afar until now.

But I want to experience even more. I still feel like this country has something to uncover. Although my home country Lithuania is a lovely place, I wouldn't change back my two years spent here. In fact, I would consider find-

ing a respectable job here and then moving on forward to live here for a while. This is where DSU steps in. Dongseo University has the ability to give students the opportunities they need by providing them the skills they require. I like that. Here you're not only learning theory without even getting your “hands wet”, but the classes here are very practical, engaging, and also giving you a lot of creative freedom while letting you try different approaches hands-on. You are always welcome here either for general information from the lovely IC office, or to ask for professional tips and advices from the school's professors. From the first month in this university it was clear to me that if I have the right mindset, I will have all the resources I need to become a skilled specialist. While I am not that skilled to be called a professional yet, I know I can do that in the future because of all the motivation I got from the professors.

But you don't only learn from professors and teachers, you also learn from your peers, classmates and other students. We have all grown as likeminded individuals and educated ourselves along the way.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has had me along their path as well.



“동서대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원하는 기회를 줍니다. 저는 그 점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동서대에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기술에 대한 이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다 수업은 매우 실용적이고, 매력적이며,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진행되어,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동서대 안에서 세계를 누리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동서대에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글로벌 인재들,
그들에게 동서대인으로서의 누리는 기쁨과 열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I have grown a lot since the first time I got here”

Hanh Vuong(Film and video 16, Vietnam)

Coming here to Korea, and to Dongseo University is a major step in my late teenage years and early 20s, which is the scariest time to figure out what you want in life and actually get your wet foot into achieving it. I remember thinking to myself that if I made mistake then, 4 years ahead would turn out to be a waste of time, but coming here has taught me that sometimes, even with the most considerate choice you made, there would still be imperfection along the way and that's totally fine. It has taught me that struggling doesn't mean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your choice, it just means you are fighting for what you love. Lessons in class is equally important as lessons I got from social skills, from team work and from caring professors. There is no right or wrong choice, there is just making the best you have been given, and Dongseo University has given me a great chance to grow as a person. Along the way, I get to meet a lot of new p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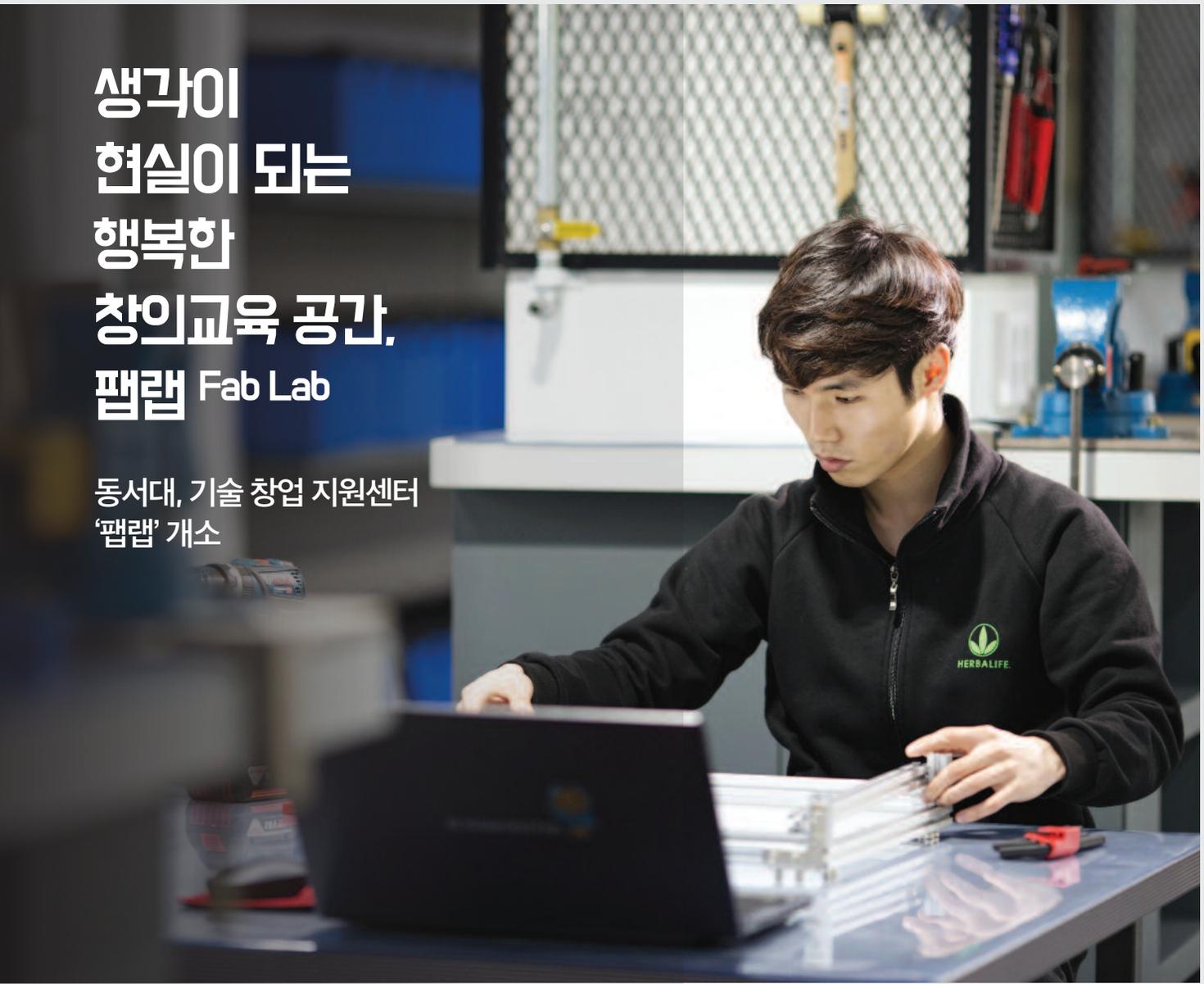
ple that come from different countries, which is such an eye-widening experience. I learn about them, and learn from them to become the best version I can be. With the help of IC office and professors, I get used to living in Korea day by day though it still amazes me every time I come back here after a vacation. Bu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you don't have to come from the same country in order to feel like home. 4 years in Dongseo University are such a short time, and the future ahead maybe uncertain, but one thing to remember from

coming here to study is to embrace the uncertainty and taking risks. Had I been hesitant to study in Korea, I wouldn't have been the person I am today, a more open-minded and a global citizen.

“동서대에서 보낸 4년의 시간은 짧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두어야 할 한 가지는 불확실성을 포용하고,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서 공부하길 주저했다라면, 오늘날 열린 마인드를 가진 글로벌 시민인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창의교육 공간, 팹랩 Fab Lab

동서대, 기술 창업 지원센터
'팹랩' 개소



2018년 9월 6일 창의교육의 요람 팹랩(Fab Lab)이 전자정보관 2층에 문을 열었다.

동서대는 팹랩을 통해 학생들과 나아가 부산 시민 전체에게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이디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체계 확보

팹랩은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를 중심으로 하여 교내 모든 학생의 창의교육을 완성시키는 장소로서, 수업과 연계된 작품, 개인적인 아이디어, 단체 아이디어, 시민이나 기업과 연계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모든 지원 체계를 확보한 공간이다.

2015년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교육과정 개편에서 시작되어 매년 5,000~7,000만 원이 설비 구매 등에 투자되고, 공간 리모델링에도 1억여 원이 투입되었다. 대학교의 중심에 위치하며 기계 및 전자제어 관련 제작, 시험장비가 200여 평에

배치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기구 및 회로 설계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용 소프트웨어는 물론, 선반/밀링/레이저 커터/용접기 등의 기계가공장비, 조립장비 및 공구, 회로설계 및 PCB장비, 제어시스템 시험장비, 3차원 측정기, 진공주형기, 3D프린터 10여 대를 구비하고 있다. 거기다 기계조립용 테이블 13개, 전자장치 조립용 테이블 6개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19개 팀 정도는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대학 내에 산재해 있는 목공기계와 사출기, 콘텐츠 제작 장비, 디자인 전용 그래픽 툴 등의 시제품 개발 장비와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할 수 있다.



Fab Lab

공간·장비 지원,

30여 년 산업분야 경험자 자문 및 멘토로 참여

20년 이상 해당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자문 및 멘토로 참여하고 있어서 이론뿐 아니라 현실적인 지도가 가능해졌다.

크게 3가지 분야에 걸쳐서 26명의 멘토들을 초빙했다. 제품개발 분야에는 PC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개발, 용접기술, 전기설비기술, 환경기술, 기계가공기술, 계측 및 시험기술 등의 분야에서 30년 가까운 경험을 쌓은 전문가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관리기술 분야에는 6명이 참여하고 있다. 품질보증기술, 제품검사기술, 구조고도화기술, 아이디어

발상법, 특허출원, 내구성 및 신뢰도, 용접 및 형식 승인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화 지원 분야에도 경영기법, 마케팅, 경영분석, 자금관리, 클라우드펀딩 지원, 행동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동서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팹랩의 지원을 받아 과제 구현 가능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생뿐만 아니라 동서대 학생이라면 전공과 관련 없이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든 시도해 볼 수 있고, 시제품으로 제작해 볼 수 있다. 우선,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부분까지 스스로 실현 가능한 지를 먼저 분석한 뒤, 팹랩의 기능이 작동된다. 만약에 아이디어가 단순한 구상 정도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지원 의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아이디어의 구현가능성, 제품으로의 가공가능성, 특허 침해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되며, 기계 구조물 설계와 이 구조물을 작동시키는 센서 및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게 된다. 성공적으로 시제품이 만들어진 아이디어는 정부지원 과제화 하여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실무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 교내 교수진과 현장의 전문가들이 멘토로서 자문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과 멘토들의 열정으로

발전해 가는 아이디어

현재 팹랩은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학부생들의 작품 제작 공간으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3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주제연계'라는 수업이 있는데, 현실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도출하는 수업이다.

2018학년도 2학기 말에는 5개반 학생, 37개 아이디어에 대해 6인의 전문가가 이틀에 걸쳐 멘토링을 진행했는데, 당시 수업담당 교수 및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로 참여하겠다는 멘토들도 많아 내년에는 이 멘토링 수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도출된 아이디어는 4학년 1학기에 SCOPE1이라는 수업을 통해 구체화 시키게 된다. 지금까지 100여 가지 작품들이 팹랩 공간에서 제작되었고, SCOPE EXPO라는 전시행사 때 전시되었다.

수업 외 교내외 다양한 창의지원 활동 서포트

수업 이외에 2018년 11월 동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최한 'DSU Make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서도 팹랩 멘토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출품한 작

품 중 5개 작품들을 위한 멘토링에 7명의 기술멘토가 참여해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과 작품 제작 지원에 나선 것이다.

동서대학교 R-WeSET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진출촉진사업) 사업단이 주최하는 '중고생 대상 공학교육 체험단 수업'도 수차례 팹랩에서 진행했다.

현재는 대학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활용도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부산 시민 전체에 이 팹랩을 완전히 공개할 계획이다.

팹랩의 프로젝트 진행 흐름





Interview

“기술창업의 메카, 부산! 우리들의 꿈입니다”

정현석 교수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학부장

팝랩의 아이디어 구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되나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의 턱받침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체득하고 있는 지식은 바이올린 연주에 관한 지식이 거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팝랩과 함께 개발하게 되면, 어깨 모양(인간공학적 측면)과 외관(디자인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기계공학, 제조 용이성, 예상 판매 수량을 고려한 재질 측면)하게 되고, 이를 시제품 형태로 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동안 팝랩에서 멘토로 활동하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수시로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상품화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안자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시제품의 완성도와 편의성에 대한 점검과 개선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아이디어만 제시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팝랩의 가장 큰 장점이나 특징은 무엇인가요?

시설과 공간은 자금적 여유만 있으면 누구나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개발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팝랩에는 지역주민 혹은 학생들과 늘

함께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친취적인 마인드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교수요원과 재능기부에 적극적인 분야별 전문가가 26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가 멘토분들이 근 30년에 걸쳐 구축해 온 세부기술 및 기업체 관련 인적 네트워크는, 팝랩에 오면 못 만드는 것이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팝랩의 운영방향과 계획은 무엇인가요?

팝랩의 장기적인 꿈은 ‘많은 부산 시민을 시장 창조자로 양성한다’입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시민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출발점은 부산 시민들을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고안자가 느끼는 자신감은 상당할 것입니다. 즉, 시민 스스로가 자신은 발명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기회를 팝랩에서 제공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분들 중에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되며, 동시대 창업지원단 및 부산시 주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이분들이 성공적인 벤처기업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인형으로 만드는 사랑, 사랑으로 만드는 희망

아우인형전을 통한
패션디자인학과의 나눔 실천



아우인형展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어린이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유니세프는 세상 가장 연약한 존재인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우인형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우(AWOO)'는 '동생', '아름다운 우리', '아우르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지구촌 어린이를 상징하는 형겁인형이다. 아우인형을 만들고 입양함으로써 저개발국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백신과 말라리아 모기장을 지원할 수 있다.

동서대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는 2009년부터 아우인형을 만들고, 전시, 입양을 통해 기부하는 '아우인형전'을 기획해 약 10년째 지구촌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



재능기부 통해 인형 100여 개 만들어 전시·판매
 동서대 아우인형전의 시작은 2009년 패션디자인학과 노윤선 교수에 의해서였다. 당시, 노윤선 교수가 활동하던 패션 단체에서 아우인형을 만들어 기부하고 있었는데, 이때 처음 아우인형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공 관련 봉사가 없을까’ 고민하던 노윤선 교수에게 아우인형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다가왔다.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에게 형견으로 인형을 만들어보는 것은 중요한 전공 내용이기도 하고, 동시에 불우한 지구촌 어린이까지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동서대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는 건학이념을 가진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일이기도 했다.
 아우인형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노윤

선 교수의 연구년인 2011년 한 번을 제외하고 빠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매년 11월~12월 사이, 동서대 갤러리에서 5일간 열리는 아우인형전은 최근부터 12월초로 날짜를 잡아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둔 시기여서 누군가에게 선물하기도 좋고,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기부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참여와 관심도가 더 높다.
 전시는 매해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 루트 3학년 학생이 주축이 되어 3·4학년 학생들, 간혹 디자인 대학원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진행한다. 한 사람이 1~2개를 제작해 매해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인형을 만들어 전시판매하고 있다. 판매로 인한 수익금 전액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 전달되며, 판매되지 않은 아우인형은 유니세프에 기부하거나 다음 전시회에 재전시된다.



2009~2018년 판매 수익금과 기부처

1회	2009 1,400,000원 어린이 6대 질병 (홍역, 소아마비, 백일해, 결핵,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 백신 지원
2회	2010 2,300,000원 어린이 6대 질병 예방 백신 지원
3회	2012 1,400,000원 어린이 6대 질병 예방 백신 지원
4회	2013 1,400,000원 태풍 하이옌 피해 입은 필리핀 어린이 지원
5회	2014 1,300,000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 지원
6회	2015 1,500,000원 시리아 난민 어린이 기금
7회	2016 1,500,000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통 받는 아이들 지원
8회	2017 1,800,000원 어린이 6대 질병 예방 백신 지원
9회	2018 1,700,000원 인도네시아 솔라웨이 섬 강진과 쓰나미 피해 어린이 지원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발전하는 아우인형전

아우인형전은 단순히 인형을 만들고 전시, 판매하여 기부하는 형태를 넘어 발전하고 있다. 2018년 전시회에는 오프닝 패션쇼를 함께 개최해 이목을 끌었다. 단순한 패션쇼가 아닌 재활용품을 활용한 의상 26점, 버려지는 종이 박스를 활용한 마스크 21점을 제작해 선보인 ‘업사이클링(Up-cycling)’테마의 패션쇼였다.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기획한 것이다. 학생들은 직접 제작한 작품을 입

고 갤러리 중앙에 마련된 런웨이를 걸으며 관객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이번에 만들어진 아우인형도 수업 중에 쓰고 남은 자투리 원단, 버려진 옷들을 재활용해 제작하여 올해는 기부는 물론, 환경까지 생각한 더욱 뜻 깊은 전시가 되었다.

2015년부터는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 전시까지 겸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는 벅스코에서 진행된 ‘부산디자인페스티벌’에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아우인형전이 초대를 받아 작품을 출품했으며, 2016년 12월에는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아우인형전을 진행했다. 아우인

Interview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노윤선 교수

“매해 달라지는 아우인형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인형전 기획자로서, 아우인형전은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느덧 9년째 진행하다 보니 아우인형전은 저희 패션디자인학과와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첫 전시부터 최근에 전시한 행사까지 눈에 선합니다. 학생들이 매해 열심히 해줘서 늘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를 풍성하고 멋지게 꾸미려니 인형만 걸어놓을 수 없어 다양한 소품도 제작해야 하고 전시 기간에 따라 주말에도 나와 설치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학생들이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는데 아우인형전

을 통해 작지만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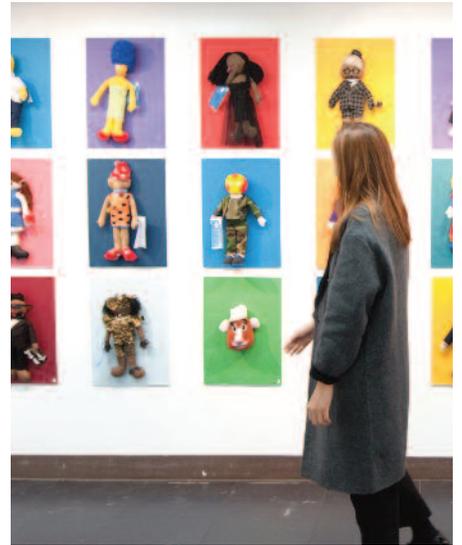
인형 크기나 모양과 규격, 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아우인형의 크기는 대략 35cm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아우인형을 입양해 주시는 주 고객은 이사장님,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이십니다. 총장님께서 매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아우인형을 입양해 가시며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매해 아우인형을 입양해

형전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교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외 전시는 동서대 패션디자인학과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 덕분에 인지, 입시생들까지 입시 면접에서 아우인형전을 이야기 할 정도로 학교 대외 이미지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콘셉트로 디자인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팀별로 회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으며 동물을 만들거나 빵을 사람형태로 만드는 등 다양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15~18cm되는 작은 사이즈 인형을 제작하여 백에 달고 다니거나 브로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격은 3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학과학생들이 하고 있는 또 다른 재능기부봉사 활동이 있나요?

학생들이 제작한 소품, 의류를 교내에서 판매하는 바자회를 열어 사상구 불우 어린이 돕기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그 수익금으로 사상구에 있는 고아원에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해주고 그림 수업 등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우인형전은 어떻게 꾸미고 싶나요?

학생들은 인형을 만들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고 2018년 전시 같은 경우는 지구 환경까지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8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학생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개발해서 더욱 볼거리, 생각할 거리가 많은 아우인형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서인다운 열정과 용기로 꿈을 이루다

(주)아이피미라클, 2018 부산시 대표창업기업 선정

정장한 (주)아이피미라클 대표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99학번, 07년 졸업)

'나의 소비가 기부로 이어진다'는 새로운 공식을 만든 정장한 동문. 그가 혁신적인 한 기업의 대표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동서대'라는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열정을 잃어가는 청년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눈은 꿈을 향해 멀리 뒤편이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손과 발은 부지런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동서대라는 울타리가 있었기에, 믿고 의지하면서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품었던 창업의 꿈

2018년 12월, 정장한 동문이 창업한(주)아이피미라클이 '2018 부산시 대표창업기업'으로 선정됐다.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지난 7년간 기업이 보여준 비전과 발전가능성이 그 이유였다.

현재는 인정받는 어엿한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정장한 동문이 사업에 뛰어들 때만 해도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라는 무게에 덜컥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었다. "졸업 후 2006년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5년간 특허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특허사업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시제품 단계에서 시장검증과 자금 조달이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대해 알게 되어 '자금조달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그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에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꿈을 포기할 정장한 동문이 아니었다. 늘 꿈을 가슴에 품었던 그는 직장생활 중 육아휴직으로 육아를 병행하며, 2011년 5월부터 약 8개월간 '기술보증기금 벤처창업교육'을 이수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의 청년창업 지원사업 과정'을 밟았다.

'동서대'라는 버팀목으로 이겨낸

창업에 대한 두려움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긴 그는 복직을 하지 않고 그해 12월(주)아이피미라클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처음에는 생각만큼 수익구조를 만든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2012년 크라우드펀딩 사이트('펀루' 초기 모델)를 자체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에는 수익구조를 만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후반에 기존 사업모델에서 비영리단체용 기부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창업교육·캠프 등을 위탁받아 모의 크라우드펀딩 교육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때 모교 동서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동서대로부터 다양한 창업교육과 캠프 등을 위탁받아 학생들이 실전 창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였다. "모교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장제국 총장님은 물론이고, 각 부처와 사업단의 교수님들, 직원 분들까지 정말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주)아이피미라클을 성장시킨 건 동서대와의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 동서대 동문인 지금의 아내와 학부시절 동기 정성중 박사, 함께 석박사를 밟았던 이대석 박사가 그 소중한 인연이다.

동서대라는 울타리가 있었기에, 그는 믿고 의지하면서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눈은 꿈을 향해, 손과 발은 현실에

주변의 많은 도움에도 결국 노력하고 선택하는 건 정장한 동문이 해야 할 몫이었다. 그는 매 순간 '절실함'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4학년 때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공부에 열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정확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꼭 이루겠다는 절실함이 저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늘 절실함을 품고 살아왔던 그가 동서대를 졸업한 사회인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CEO로서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픈 말이 있다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영화처럼 살고자 한다면, 꿈을 두고 도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충실해야하죠."

그의 말은 '꼭 나처럼 해야 한다'가 아니다. '할 수 있다'는 격려이자, '함께 하자'는 제안이다. 정장한 동문은 지금도 눈은 멀리, 손발은 현실에 담근 채 살아가고 있다. 아직 더 이뤄야 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소비에 기부를 연결하라 'Connect everything with Donation'

(주)아이피미라클

지역기반 O2O 소비기부 중개 플랫폼 서비스인 '펀루'를 제공하는 펀드레이징 테크기업이다. 펀루에 입점한 기부판매 사업자의 매장과 상품을 이용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곳으로 사업자가 대신 결제금액의 10%를 기부하고 소비자에게 최대 3%의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지역의 다양한 비영리단체는 소속 회원의 소비 활동을 통해 손쉽게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상권도 함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BM특허(Internet Business Model Patent) 획득)이다. 현재 펀루에는 1만 개 단체회원, 40만 개의 사업자 회원, 개인회원은 약 10만여 명이 가입되어 있다.



MY DSU Diary

로망이 꽃피는 새내기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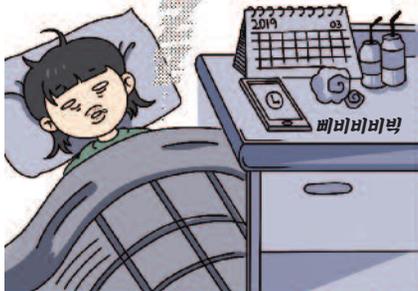
삐비비비빅



헉! 실화임?
드디어 그날이다!



오늘 드디어 입학식!
아, 설레서 잠 한숨도 못 잠.
진짜 못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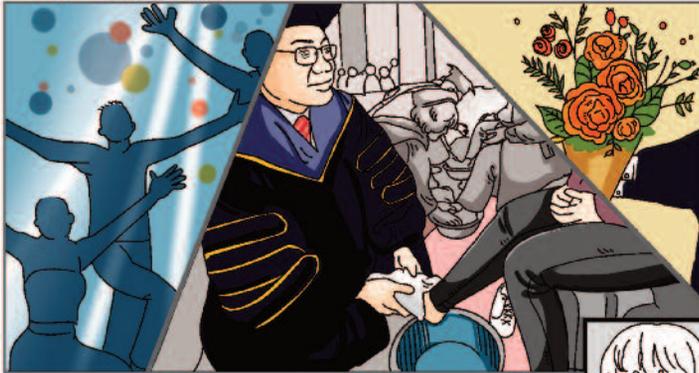


오늘부터
저 동서대
학생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동서대학교 신입생이 된 데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낍니다.
학칙을 준수하고 배움과 수련에 힘쓰며
학생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동서대는 2019년 수시·정시모집에서
총 1만6498명 지원했으며, 수시모집
경쟁률은 7.05대 1, 정시모집 경쟁률은
4.02대 1을 기록했다.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학,
글로벌 동서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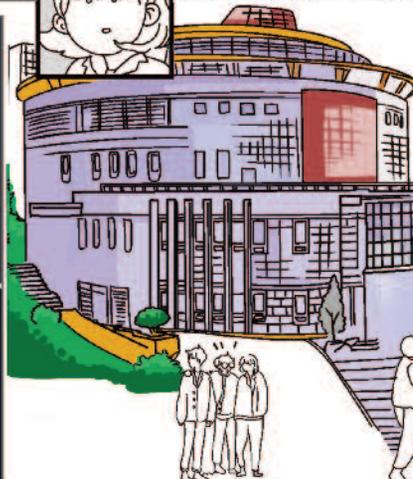


따뜻한 마음과 실력을
겸비한 교수님들과
최첨단 교육환경이
여러분의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와아
~~!!!

동서대
학생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안녕! 나는
경찰행정학부 김동진.
네가 이번 전체
수석, 박서윤이구나.

어? 어!
안녕.

응. 나는 My Bright Future 장학금 받았어. 근데, 뭐 나 말고도 받은 친구들 많더라. 워낙에 동서대가 신입생 장학금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거 같아.

너 그럼 장학금 받고 들어온 거야?

아니, 장학금은 아니더라도 신입생을 위한 혜택이 많아서 알차게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 같아. 근데 나 대우에서 온 거라, 아직 여기엔 친구가 없어. 같이 다니지 않을까?

혹시, 너두?

동서대에는 신입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My Bright Future' 장학, '교육역량강화장학' '학부수석장학', 'IBT' 토의성적우수장학' 등

야 완전 좋지! 그럼 너 저기 글로벌 하우스에 살겠다.

2인 1실인데,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에 완전 좋아! 집보다 좋아!

넌 동서대에서 어딜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어?

대학생이라면, 도서관 아니겠니? 도서관 출입하려고, 동서대 어플 먼저 깔았다는 거~ 식당 메뉴까지 볼 수 있어 ㅋㅋ

동서대학교 어플을 통해 민석도서관 출입을 위한 '모바일 학생증'을 등록하고, 도서관 자료확인, 희망도서관신청, 대출현황, 민석도서관 전자책(E-book)을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귄 거야! 동서대하면, 글로벌 프로그램 유명한 거, 너도 알고 있지?

어, 나도 그래서 동서대 글로벌 영어프로그램 신청했어! 전 과정 100%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영어실력도 진짜 빨리 늘 것 같아

동서대글로벌영어프로그램 : 매년 신입생들만을 대상으로 우수한 학생 50명 내외를 선발, 전 과정 100%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1년간 주 16시간(한 학기 10학점) 집중코스를 이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Oh really? Let's go together!

Excuse me~ I'm looking for a GSI building.

I'm going to take Film & Video Class, you guys?

um... We came to design classes.

Cool~~ Thanks for your Kindness. Let's see if we have a chance next time.

OK!~bye!

동서대는 1학년 전원에게 전공에 관계없이 체계적인 디자인 교육을 실시해 창의적 마인드를 일깨워주고 있다.

영주원! 어제 수업 완전 짤었어! 오늘 수업도 대박기대돼~ 언능 가즈아

뭐야... 완전 한국 사람이잖아...! ?

Show time for Graduation Project

2018 디자인대학&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졸업작품전 들여다보기

디자인대학 졸업작품전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완성된 창의적 디자인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디자인대학이 루트·학과 단위로 졸업작품전을 연이어 개최했다. 제20회 환경디자인 졸업작품전시회에서는 E1, E2루트 학생들이 각각 건축·실내디자인·도시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제2회 CA루트 졸업작품전시회에서는 27명의 학생들이 'AD, ADD 광고, 더하다'는 주제로 작품을 전시했다.

제2회 Graphic 루트 졸업작품전시회에서는 시각디자인 영역을 이수한 학생들이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어 제2회 프로젝트 이노베이션 루트에서는 생활용품을 주제로 산업과 연계된 작품들을 전시했으며, 제2회 인더스트리얼서비스루트 졸업생들은 사회적 약자부터 스마트한 프로슈머 등 자유 주제로 각자 2개의 작품을 만들어 전시했다.

제19회 패션디자인학과 졸업작품패션쇼는 영화 <그랜드부다페스트>에서 영감을 얻은 '체크인' 등 총 7개의 테마로 구성해 지루함 없이 진행되었다.



COLLEGE OF DESIGN GRADUATION EXHIBITIONS





IM KWON TAEK COLLEGE OF FILM & MEDIA ARTS GRADUATION FESTIVAL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졸업작품페스티벌

뮤지컬부터 영화, 연극까지... 열정으로 꽃 피운 청춘 예술

2018년 11월 2일 저녁 7시 30분 소향씨어터에서 열린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제3회 졸업작품페스티벌 개막식을 시작으로 뮤지컬과 영화과, 연기과의 졸업작품 공연과 상영,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뮤지컬과 졸업공연인 <EXIT: 飛上>은 11월 2일과 11월 3일 소향씨어터에서, 영화과 졸업영화 상영전인 <REC>는 11월 11일부터 소향씨어터에서 열렸다. 영화과의 졸업영화로는 <피의 격차>, <두 고양이>, <매혈기>, <사랑의 이름>, <시선>, <임량>, <드라이브>, <어게인>, <수학여행 가는 길>이 상영되었는데, 이 중 <피의 격차>는 2018년 제3회 부산대학영화제에서 3위를 수상하며, 영화과 졸업생들의 실력을 대외에 입증하기도 했다. 이어 연기과 졸업공연인 <어거스트: AUGUST>는 11월 15일부터 17일, <어둠의 힘>은 11월 22일부터 24일 각각 5층 소향실험극장에서 열려, 교내외 관객들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디지털콘텐츠학부 졸업작품전

2018 G-Star 중심에서 알린

디지털콘텐츠학부의 빛나는 성과

2018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8'에서 제15회 디지털콘텐츠학부의 게임·애니메이션·영상 등 모든 트랙을 통합한 졸업전시회가 개최되었다.

2018 G-Star에 참여한 대학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 동서대 디지털콘텐츠학부의 14회 졸업전시회에서는 크게 모바일 게임존, PC게임존, 애니메이션 워크존, VFX 워크존, 그리고 웹툰 존으로 구분되어, 전년보다 더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학생들이 도전함으로써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지고 학부의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게임이나 VR 등은 전시를 넘어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동서대학교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 거행

박사학위 16명, 석사학위 112명, 학사학위 2,156명 배출
외국인 유학생들도 디자인·영상콘텐츠 분야 등에서
대거 동서대 졸업장 받아

황금돼지의 해에 동서대학교 졸업장을 받은 동서인들이 가슴을 활짝 열고 사회로 첫발을 내디뎠다. 졸업 동문들은 국내를 넘어 세계무대에서 꿈을 펼쳐며 인류에게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슴에 새겼다. 2월 8일 열린 동서대학교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에는 학부모, 친구, 동료, 동서대 교직원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박사학위 16명, 석사학위 112명, 학사학위 2,156명을 배출했다. 박사학위의 경우 일본지역연구과·영상콘텐츠학과·유비쿼터스IT학과·디자인학과 등 5개 학과에서 인재를 배출했다.

석사학위 졸업생은 일반대학원 76명, 경영대학원 15명, 선교복지대학원 19명, 디자인전문대학원 2명이다. 학사학위의 경우 2개 대학, 12개 학부·2개 계열, 35개 전공·18개 학과에서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계 곳곳에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들도 디자인학과·영상콘텐츠학과·유비쿼터스IT학과·경영학과 등에서 형설의 공을 세워 영광스러운 동서대 학위모를 썼다. 학위수여식에서 장제국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넓은 시야와 끝없는 탐구정신, 그리고 정직함에 기초한 이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에 나가서 동서대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활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서학원 신년예배·신년하례회

부산지역 명문사학으로 자리를 굳힌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1월 7일 모든 동서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신년예배·신년하례회'를 가졌다. 동서대·경남정보대·부산디지털대 교직원들은 지난 한해 베풀어주신 큰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인재양성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사회에 의와 진리가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동서가족들이 사랑과 정적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동서아너소사이어티 10주년 Homecoming Anniversary

동서아너소사이어티 졸업 동문과 재학 중인 현 멤버들은 10월 20일 해운대 센텀캠퍼스에 모여 '동서아너소사이어티 10주년 Homecoming Anniversary' 행사를 가졌다.



2018 학술엑스포

'2018 학술엑스포'가 10월 25일, 26일 이틀간 동서대 냉정 메인캠퍼스와 해운대 센텀캠퍼스에서 개최됐다. 각 학부, 학과, 대학들은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거나 결과물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필름 & 미디어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쇼'

동서대 창업지원단은 지역 영화·영상기반 콘텐츠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름 & 미디어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쇼'를 11월 15일 해운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1회 모카어워드 시상식

10월 26일 동서대 미디어아웃렛에서 열린 제1회 모카어워드 시상식에서는 전 세계를 무대로 방송 중인 인터넷방송국 <모카>에서 편성된 다양한 콘텐츠를 부문별로 심사한 뒤 시상하였다.



제5회 상상실현 페스티벌

컴퓨터공학부는 11월 29일 U-IT관 로비와 601호, 국제세미나실에서 제5회 상상실현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총 81팀 222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창의적인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DSU NEWS



청년창업한마당투어 스타트업 페스티벌

창업지원단은 12월 4일 U-IT관 6층 로비와 국제세미나실에서 학생들의 스타트업 확산과 창업 정보 교류를 위해 '청년창업 한마당투어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18 SCOPE EXPO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는 11월 29일 전자정보관에서 '2018 SCOPE EXPO'를 개최했다. 이번 엑스포는 ▲SCOPE 작품전시 ▲주제연계 아이디어전시 ▲PULSE 작품전시 등의 테마로 나누어 진행됐다.



LINC+ 캡스톤디자인 FAIR

LINC+사업단이 12월 6일 U-IT관에서 '2018 DSU LINC+ 캡스톤디자인 FAIR'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캡스톤디자인 과제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전시·홍보함으로써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

총학생회와 국제기술봉사단, 교직원들이 1월 11일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를 통해 사상구 패달동 거주 가구에 연탄 1,500장을 배달했으며, 주례 2동 경로당 일곱 군데에 12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제공했다.



동서대 졸업 중국 유학생들 중남재경정보대학 교수 임용

동서대 대학원 영상콘텐츠학과를 졸업한 중국 유학생들이 중남재경정보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번에 교수로 임용된 졸업생은 팡시, 천위안위안, 추자이까지 3명이다.



중국 무한 '한중뉴미디어 문화창의 산업 단지' 건설

8월 27일 '한-중 호북성 경제협력 설명회'에서 동서대와 중국 무한 홍산구, 중남재경정보대학이 협력하여 중국 홍산구에 한중뉴미디어 문화창의 산업단지 건설을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텔콤대와 학술교류 협정

동서대와 인도네시아 텔콤대(Telkom University)가 10월 30일 뉴밀레니엄관 11층 글로벌룸에서 학술교류 협정식을 가졌다. 협정을 통해 양 대학은 ▲교수·교직원 교류 ▲학생 교류 및 유학생 파견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전매대학 라오상총 총장 일행 동서대 방문

자매대학인 중국전매대학의 라오상총 총장 일행이 9월 2일~3일 동서대를 방문했다. 라오상총 총장 일행은 동서대 센텀캠퍼스를 찾아 소향뮤지컬시어터 등 뮤지컬 관련 시설을 중점적으로 둘러봤다.



제15기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

'제15기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 수료식'이 2018년 12월 21일 GSI빌딩에서 열렸다. 제 15기 과정에는 지난해 1학기부터 참여한 한국 학생 28명, 2학기부터 참여한 일본학생 29명 등이 영어집중과정을 마치고 수료장을 받았다.



장제국 총장 토크 콘서트 개최

10월 5일에는 장제국 총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제국의 아이들, 외치다'라는 주제의 토크 콘서트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열렸다. 학생들은 사전에 자신들의 의견을 질문서에 적어 제출했고, 장제국 총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토크쇼가 진행됐다.



박동순 이사장 여성운동가상 수상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이 11월 23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제8회 박차정여성운동가상'을 수상했다. 박동순 이사장은 동서학원을 설립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권의 보호를 위해 힘써왔고, 여성총장으로서 부산지역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한철환 교수, 한국항만경제학회 회장 선출

한철환 동서대 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가 한국 항만경제학회 제19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부터 1년이다. 한 교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항만경제학회 편집위원장과 부회장을 지냈다.



임순례 감독 마스터클래스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은 10월 8일 'Cinema Camp in Busan'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릿고대학, 난양공대, 채프먼대, 동서대 학생 및 교수진들이 참여,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관람하고 마스터클래스 시간을 가졌다.



김형오 前국회의장 특강

민석교양대학은 11월 27일 콘서트홀에서 김형오 前국회의장을 초청해 '우리가 몰랐던 백범 김구'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초청 특강은 김 前의장의 특강, 학생들과 토크 콘서트,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장미란재단 토크콘서트

'역도 여제' 장미란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미란 재단이 10월 2일 동서대를 찾아와 민석스포츠센터에서 레포트과학부 학생들과 비전 나눔 토크콘서트인 '장미빛 인생'을 개최했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대학의 가치는 대학을 졸업한 인재에게서 나옵니다.
대학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배웠는지에 따라
인재의 크기와 깊이는 달라집니다.

동서대학교는 학생의 재능과 능력을 찾아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인성과 국제화 교육 등 학생들이 자신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맞춤식 교육으로 동서인에게 '미래의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동서대학교를 통해 배운 것들은 변치 않을 가치가 되어
동서인의 가능성의 크기, 생각의 깊이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토록 멋진 동서대학교에서
세상 어디에도 없을 인재로 거듭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토록 멋진 동서대학교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47 Jurye-ro, Sasang-gu, Busan 47011, Korea
www.dongseo.ac.kr
T 051.313.2001~4